

Savoir sans Frontières

안셀름 앙팔루의 모험

에코노미콩

Jean~Pierre Petit

장 피에르 뷔띠



번역: 차 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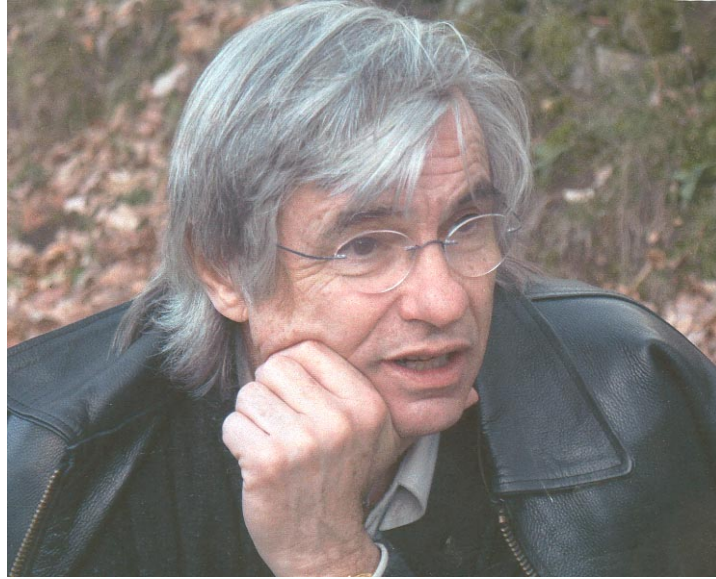
<http://www.savoir-sans-frontieres.com>

사부아르 상 프롱띠에르

1901 년 협회법

Villa Jean-Christophe, 206 Chemin de la Montagnère, 84120 France

동호회장 : 장 피에르 뺨띠 **Jean-Pierre Petit**



전 Cnrs 천체 물리학 연구원장인 장피에르 뺨띠씨는 과학 만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로, 2005 년 20 여 편에 이르는 그의 작품들을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용을 가능케 하였다.

한편,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무료로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부아르 상 프롱띠에르(국경 없는 지식) 라는 동호회를 창시 하였다.

현재, 이 동호회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부금은 번역가들의

사례금 (150 유로)으로 쓰이고 있으며, 매일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2005 년, 라오스어와 르완다어를 비롯해 18 개 국어)

현 PDF 파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교사들의 수업 중에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발췌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인쇄물이든, 컴퓨터 전산망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저자는 가장 읽기 쉬운 앨범(12 세) 컬렉션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문맹자들을 위한 « 음성 스피치 » 작업과, 외국어 학습을 위한 « 두 가지 언어 » 서비스를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동호회는 수준 높은 기술용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번역자 발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 년 동호회의 재정자금은 새로운 번역가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기부금(Savoir Sans Frontière 앞 수표)을 기다리고 있다.



번역인 소개

차지영, 1979년 출생으로 현재 빠리에 거주 중이며, 부산외대에서 불어학을 전공하였고, 프랑스 Angers 대학에서 프랑스 문화·예술 국제 매니지먼트 석사 학위 취득하였음.

주한 불란서 회사와 주불 한인 기업 법인에서 통번역 및 법인장 비서로 일한 바 있으며, 불한 통번역 프리랜서로 활약 중.

SAVOIR SANS FRONTIERES 협회의 전세계 무료 지식 전달이라는 취지에 매력을 느껴 장 피에르 뺏티씨의 과학 만화의 한글 번역작업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음.

LA TRADUCTRICE, CHA JI YOUNG

ji-young.cha@wanadoo.fr

Je suis née en 1979 et j'ai étudié le français à l'Université des langues étrangères de Busan en Corée du Sud avant d'obtenir un DESS de management international des arts de la France à l'ESTHUA d'Angers. Je réside actuellement à Paris et après plusieurs expériences professionnelles en tant qu'interprète et assistante de direction dans des sociétés coréennes je me suis lancée dans la traduction des bandes dessinées de Jean Pierre PETIT pour l'association SAVOIR SANS FRONTIERES. Je suis très heureuse d'avoir participé à cette diffusion généreuse du savoir, dans toutes les langues de la planète.

프롤로그

옛날 옛적에 변두리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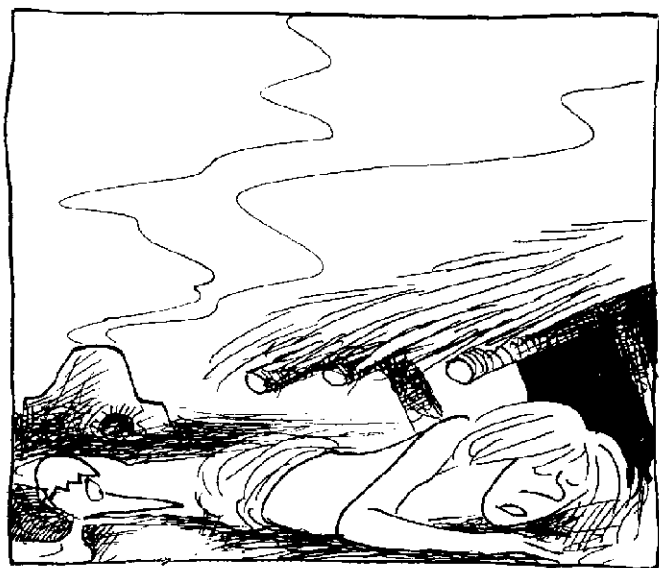
다했습니다요,
주인님.

그래, 이것들 다 마르거든
화덕에다 넣고, 가서 장작
좀 캐어 오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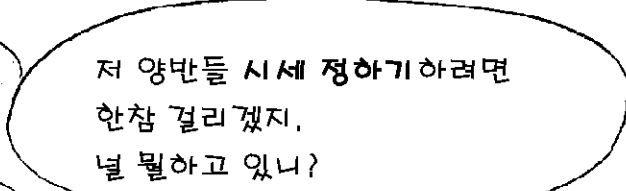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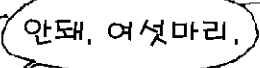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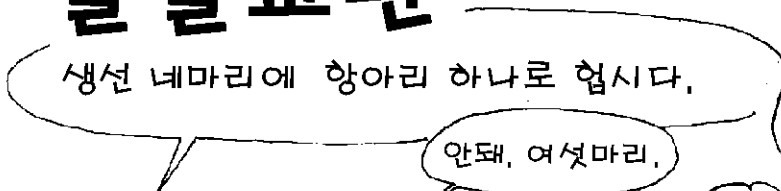
이 화덕도 이 땅과
마찬가지로 내 부친께서
물려주신 것이지,
내 부친도 나 처럼
부친으로 부터
물려받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익스부르가는 수세기
동안 항아리를 만들고 있는거라구.




물물교환





우리 주인님은 나한테 겨우 굶어죽지 않을 만큼만 주셔,
내가 뭘 어쩌겠어? 강은 쿠루미 계급들 만의 것이고
난 그저 틀일 뿐이니,
법에 따르면, 오직 쿠루미들 만이 카팔신이 주신 강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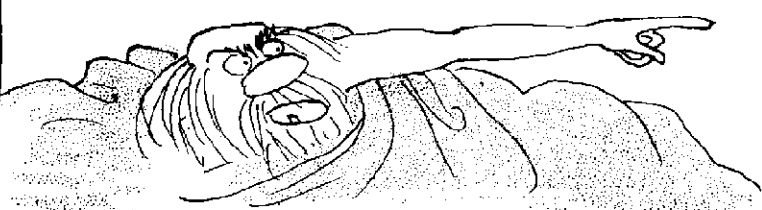


나도 알아,
우리 변두리아에도
그 비슷한게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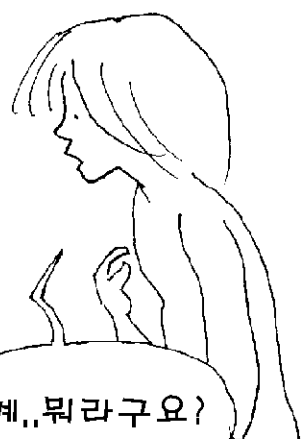


옳다!

그리하여 향아리를 만들던 변두리아인들은 쿠루미
들의 생선과 그것을 바꾸었고,
그 뒤, 서부지방의 풀락들로부터 소금을 들여와 생
선을 염장하여 향아리에 묻었는데,
이것으로 풀락들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풀락들은 차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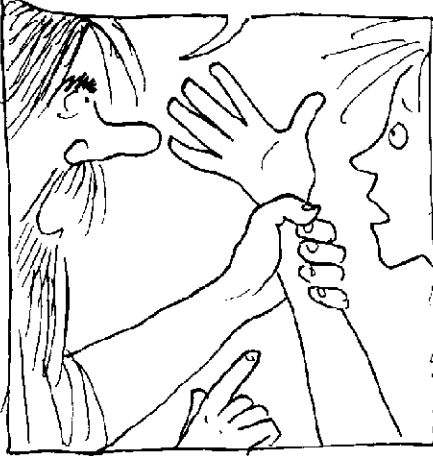
이 망할놈의 관절염!
향아리들 챙겨서 쿠루미놈한테 다녀오거라,
그 녀석이 널 못 숙여먹게 니놈에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줘야 겠다.



계.. 뭐라구요?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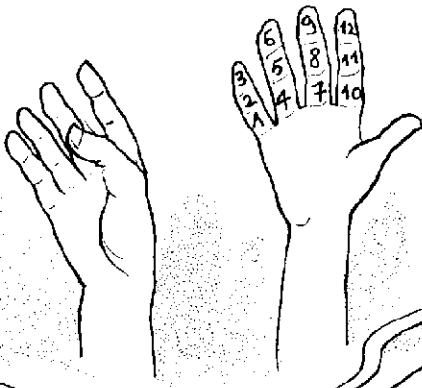
네놈에게 손가락의 비밀을 가르쳐 주마, 잘 보거라, 툭탕어 손을 펼쳐보거라, 여기 손가락들이 보이지? 이 손가락들에는 각각 마디가 있지 않느냐?



이런건 너한테 가르쳐주는게 아니지만, 안 그랬다가는 그 쿠루미 녀석이 네게 바가지를 양동이 마냥 씌울게 뻔하니,



난 바가지 쓰고는 못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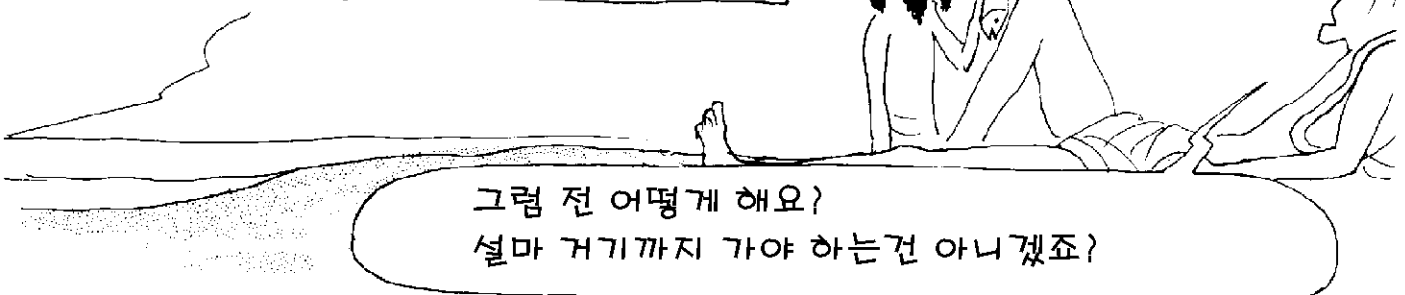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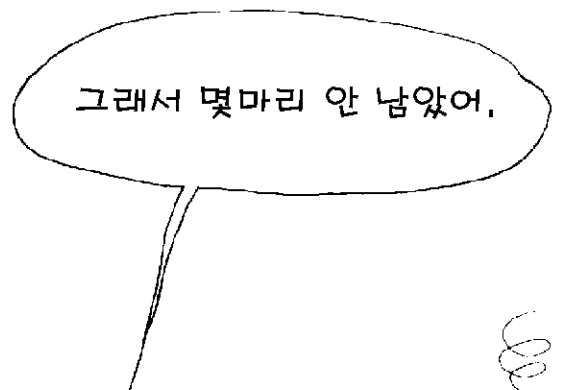
우선, 이 순서대로 엄지손가락으로 가르켜 보아라, 그러면 한 열두개 썬되지, 그런 다음 나뭇껍질들로 이걸 모두 표시해 두거라,

그럼 가 보거라, 그리고, 그건 아무한테도 알려줘선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월신께서 벌하실 것이다, 아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꼭 보여주도록 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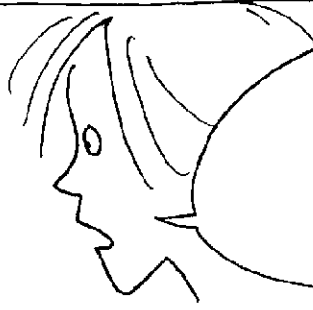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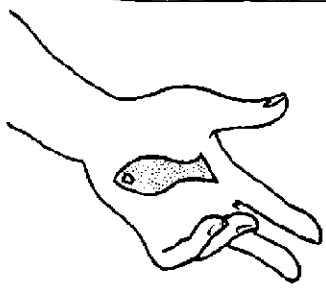


나를 속이기라도했다간 네놈을 호되게 때려줄테다.,

화폐의 탄생



물고기 보다 더 좋은게 있어, 이 쇠물고기들 있지?
이 쇠물고기 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를 상징하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주인님께 물고기 대신
이걸 갖다드리면 뭐라고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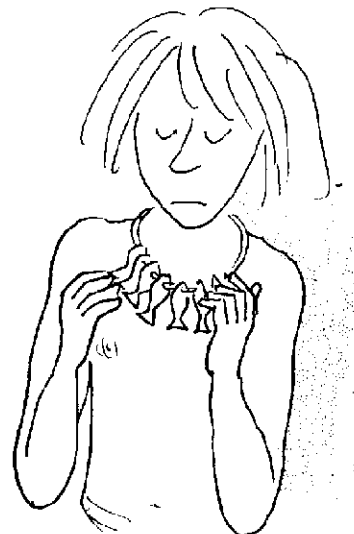
이 쇠물고기들이 얼마나 귀한건데, 폴락들은 가끔 이걸로 내 식품들과
교환해 가곤한단다,
이걸 아주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녹여다가 다른것도 만든대, 글썄.



못 믿겠어요, 너무 작잖아요,
이걸 가져갔다간 저 맞아 죽어요.

너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니?
이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다구, 물고기 하나에
물건 하나.

그래야 헛갈리지도 않구,
거봐, 목걸이도 되잖아,
목에 거니까 먼길을 가도
잃어버릴 염려도 없지. (*)



(*) 이 방법은 먼 훗날 메디테라네의 몇몇
마을에서 다시 상용된다.

장사



어쩐지,
가벼워서 좋네.



그러니까, 쿠루미 자식이 이걸 주더란 말이지?

네, 물고기 값이랑 같고 그 지방에선
많이 사용된다고 하던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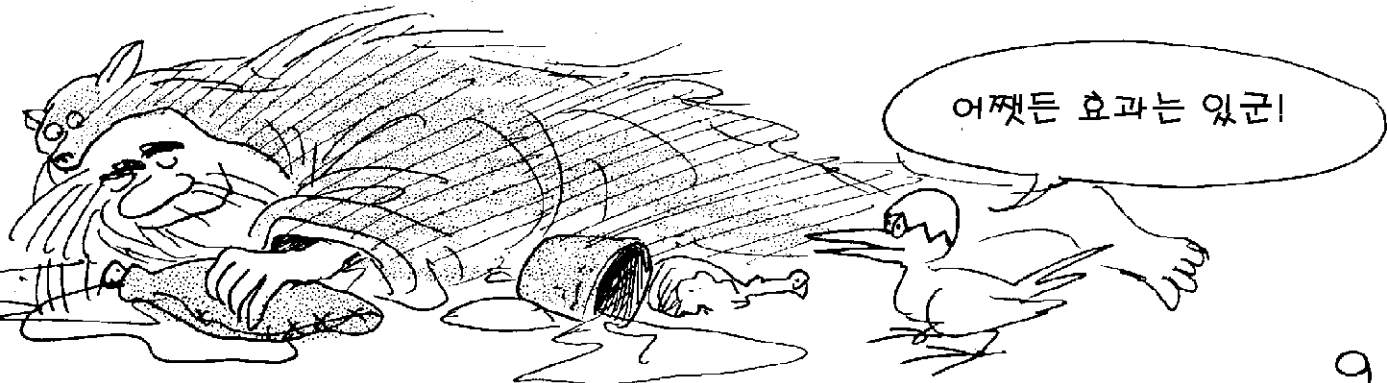


거짓말이면,
각오해!



홀름해! 항상 내 항아리를 무시하던 타약
놈들이 아 글썸, 이 쇠물고기들 보더니
환장을 하는군.
이걸로 모피와 고기를 다 얻을 수 있다니!

게다가 다리귀신 물리치는 요상한
약까지.



어쩐지 효과는 있군!

그러니까, 결국 화폐란 것은 일시적인 소모품들과 직접 물건을 교환할 필요없이도
상품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로구나.

익스부르는,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다가 교환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동전을 받으면서, 결국 이것으로 향아리를 고기와 술로 바꾸게 된거야.



장점은 일단 가뱌단 거지.

소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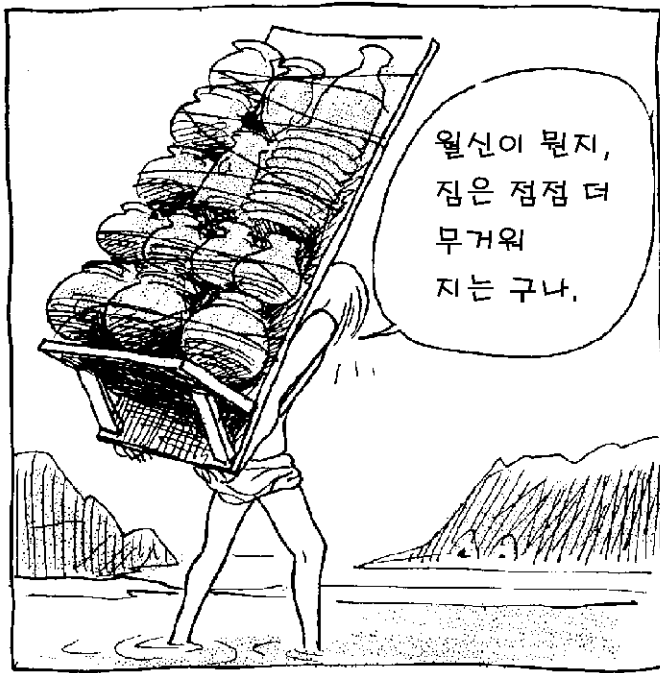
결정했어, 앞으로 훨씬 많이 향아리를 만들거라, 그리고 그것들
가져다가 진짜 물고기들 말고 그 조그만 쇠물고기들로 바꿔오너라,
이제부터 그걸로 고기나 약을 사야겠다.



세 배나 많은 향아리를 만든다고
너한테 돌아오는게 뭐가 있니?
필요량 이상의 세배



그럼, 생선뼈다귀 말고 닭뼈다귀 팔게 되는 거지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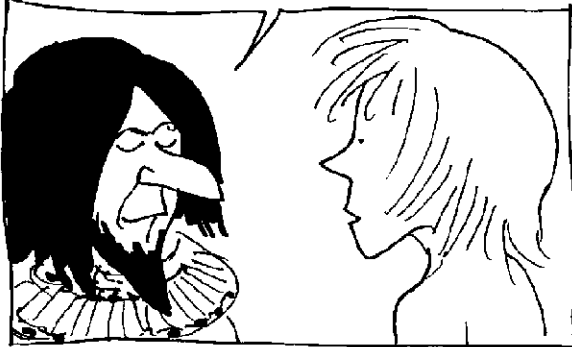
월신이 뭔지,
짐은 점점 더
무거워
지는 구나.



와우, 그림이 새겨진 물고기는
처음 보는데요.

앗, 처음봐?

서부 폴락들은 아무나 하고 곧잘 전쟁을 하곤 했지,
결국은 자신들을 공격했던 뉴미스왕의 신경을 거스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나중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다는 소문까지
들게된 거야. 그러던 중에 이 쇠물고기에 관심이 있던 뉴미스왕이
광산과 제철소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지.
이제는 그가 이 사업에 독점하고는 이 동전에다 자신의 고유
상표 도장을 찍은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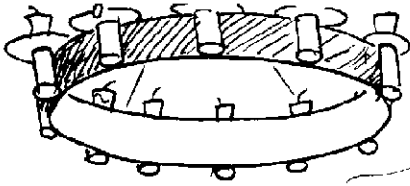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말뚝으로 찢러 죽이는 형벌에
처한대!

으으윽..!



화폐의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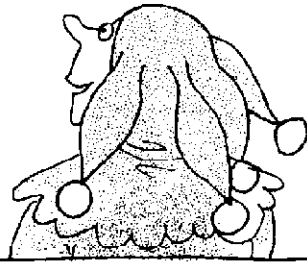
뉴미스 왕가



플락들의 화폐의 발명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제 우린 지구의 모든 땅을 살 수 있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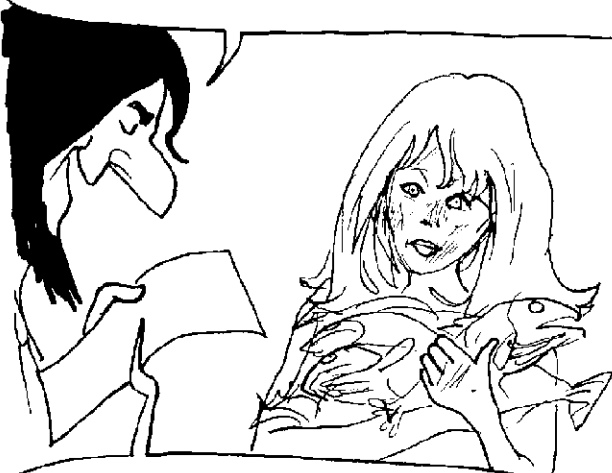


지구 말씀이
심니까, 폐하?
우주는 어떠신지...



그렇지 우주를 사야겠구나!

일이 잘 되고 있어, 소피아, 뉴미스왕의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지구의 모든이들을 만찬에 초대하셨대,
그래서 생선절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구나.



낙시량을 늘려야겠어,
호수 전체를 낚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만들거라.



오, 내 사랑스런 화폐들!

안셀름으로 말하자면, 익스부르가 주문받은 엄청난 량의
항아리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장본인이다.

모두 합해서 손에 손에 손이오, (*)



화살촉 말인가?
이미 화살통이 다 찰 만큼
한가득 있다, 영감탱이,
그러니 그깟건 필요 없다구.

그리고
그 쇠덩이두
... 쇠말야.

정 그렇다면,
화살촉 네 손에
1리터로 해주지.

한편, 다른 생산라인 타락에서는...

다리귀신 잡는 약이랑
또 뭐가 필요한가?



아니 글썄 지불 할 수
있대두... 돈으로 주겠다니깐.

그런법이 어딴어,
1리터에 화살 하나 였다구!
원래대로 하지 않으면 무력을 쓰는 수
밖에 없어!



그..그래? 그럼 어서 가서
송진하구 닭 날개털 갖구와.

(*) $12 \times 12 \times 12 = 1728$
1손은 12 마디를 상징.



무슨일 있으세요,
주인장님?

아 글썄, 타약놈들이
쇠물고기를 안 받겠다잖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옛다, 향아리들,
이번엔 진짜 물고기로 쥐!



아니면, 향아리 하나에 동전 네 손으로
하던지,

네, 네 손이?
뭐 잘 못 드셨수?



잠시 후.
폐하께서 나를
찾으시다,

너희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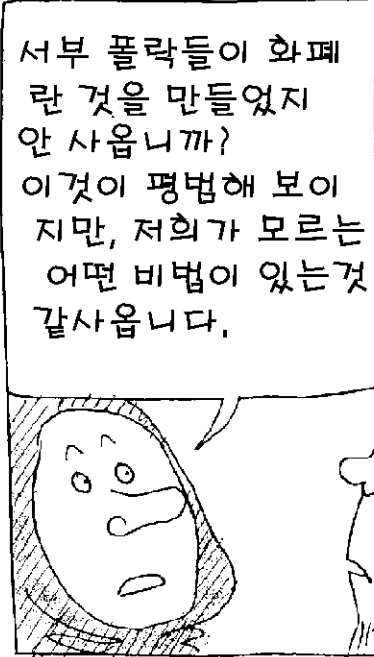
장군, 그게 무슨 말씀
이신가? 물고기 하나에
네 손이라니!?

말뚝형에 처하겠노라.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서부 플락들이 화폐
란 것을 만들었지
안 사옵니까?
이것이 평범해 보이
지만,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법이 있는것
같사옵니다.

플라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탁해 보면?

폐하,
이미 영변에
쳐해 모자
죽었사옵니다.

그런가? 참으로
안타까운지고,

저희가 화폐를 발행했을때 완율은 물고기
한마리에 동전 하나 였사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발행해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버렸 사옵니다.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일로
아뢰옵니다.

쿠루미네에선 뉴미스왕의 고급화 정책이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게 다란 말이냐?
이 망할 것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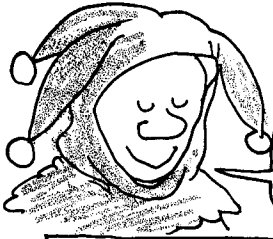
화내셔도 소용 없어요, 말도 안되는 주문을 하시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바닥까지 다 파멸되었다구요.

물고기들이 반으로 줄었다고?
수입을 유지하려면 값을 두배로 올리는 수 밖에.

동전 8손이면 무지 비싼건데.

귀한것은 비싸다,

보셨습니까, 폐하? 물고기가 귀해지니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귀하니까 가치가 오르는 것입니다,



화폐는 잘못 선택하신것 같습니다,
쇠는 이미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수레바퀴까지
쇠로 만들 정도에다 야금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다 귀한 재료로 화폐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은가?

금입니다,



옳커니, 황금이야말로
만들기가 쉽지 않지,
대량생산이 불가능할
테니 말일세,

부패하지도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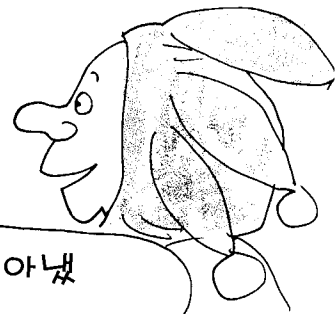
한가지가 걸리는데,
금은 너무 물러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은가?

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지만... 일단 쇠는 제법 쓸모가 있지 않은가?
화살촉도 만들고 못도 만들 수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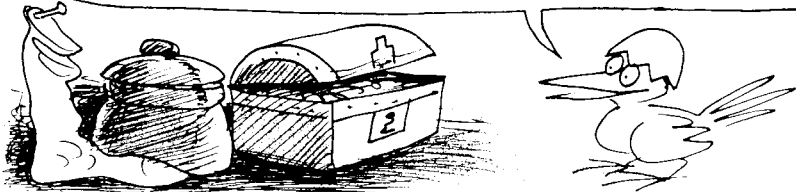
소모품들 말이야,



금의 용도를 알아냈
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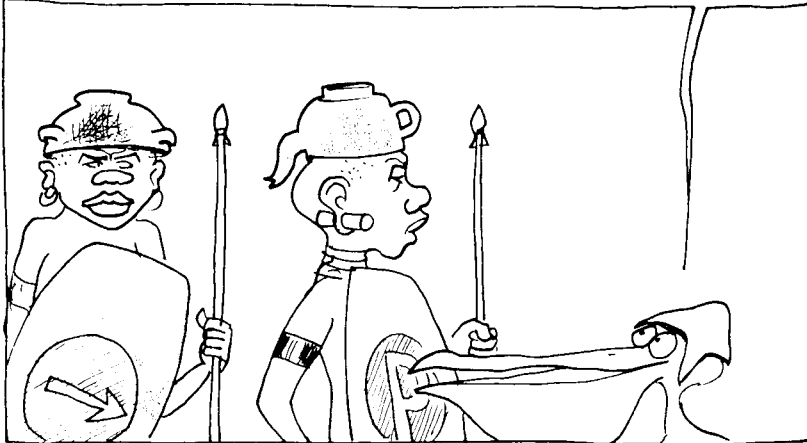


비로소 통화의 안정기에 접어들었구나,
화폐는 거래의 필수 매개체가 되었어,
이제는 축적되어져 저축까지 하게 되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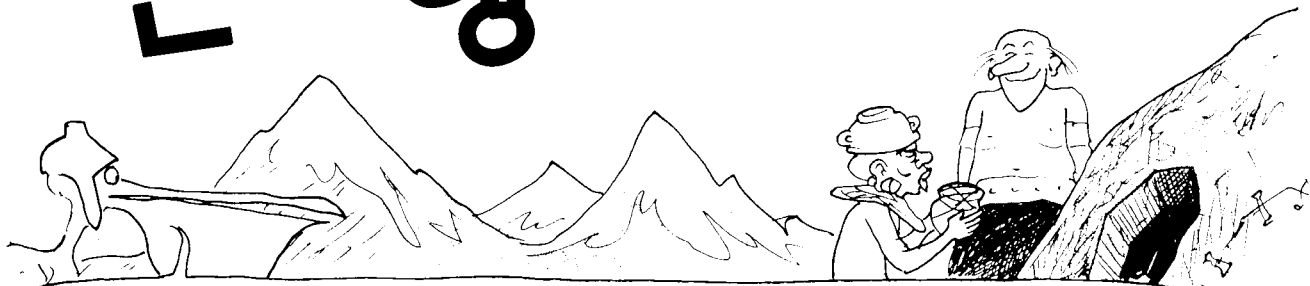


상업이 점차 발달하여 익스부르는
타약들이 향아리를 사계금 설득시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어,

이어 타약의 왕도 기꺼이
그것을 사들였고
사냥한 고기들을 팔면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지,



우 행



행여나 도둑맞지 않을까 백성들의 금전 보관이 고민이던
타약왕은 성실한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적은 비용으로 맡기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한다.

소비로 인한 물가상승

여러분 보십쇼! 별거승이 머리로 다니시는 분들,
우주공격, 나쁜귀신, 강한 자외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오리지널 변두리안표 모자 한 번 써 보십시요!
자 사세요, 사, 머리덮개 사세요,



머리덮개 절찬 판매중

이제부터 학교의자에서 시간낭비 마십쇼,
이 영지모자가 여러분의 뇌를 관통해서
모든 지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기있는 일자무식 안셀름 앙폴루도
이 머리덮개를 쓰고 손가락의 비밀을
알아 냈습니다.

역시 익스부르는
광고하는덴 무서울게 없군!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냐!?!

오늘 장사 끝장나게 잘되고
있어, 안셀름.



50길바르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뭐
60길바르?

값 좀
올리죠?



아가, 값은 월신이 정하는 거야,
또 사러 온다는 건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는 거라구.

이 놈의 향아리 굽느라고
숲을 다 밀어버렸네, 글세.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이제부터, 향아리 구울 때 이 까만기름,
나프타를 쓰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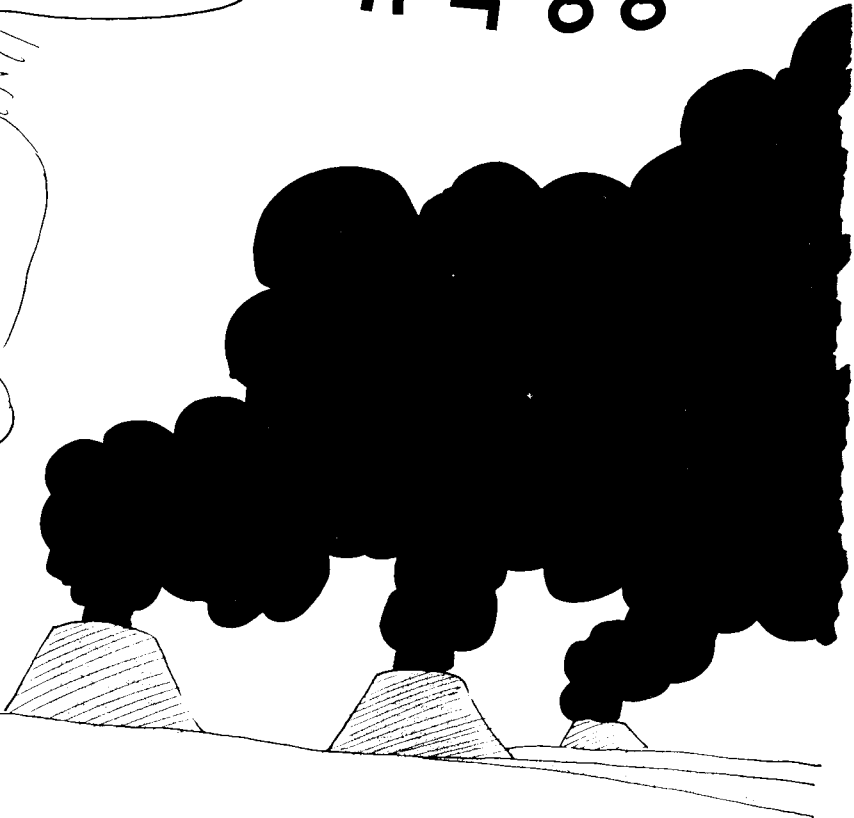
앗, 냄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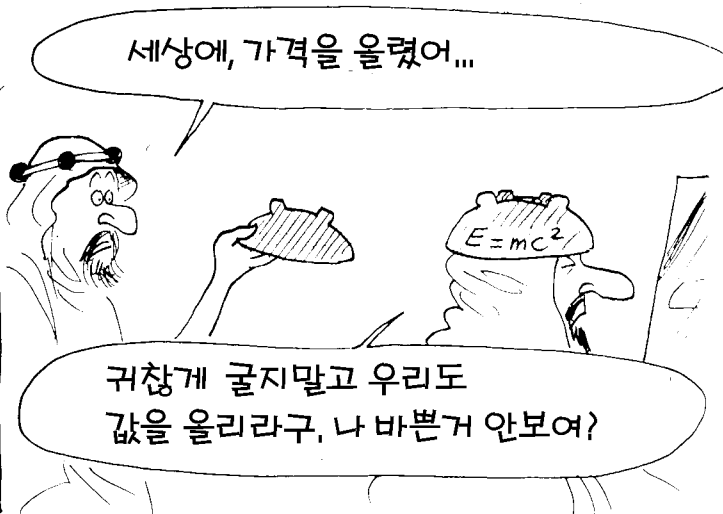


그냥 돌리기만 하라구,
나머진 그냥 뒤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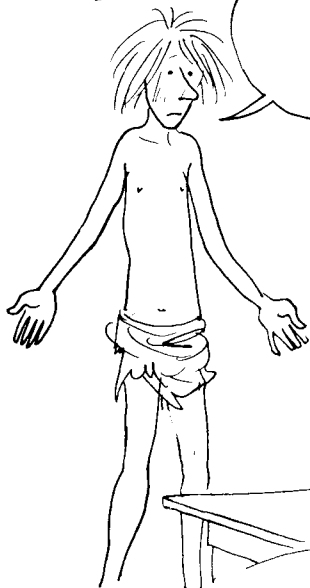


비용에 의한 가격상승





어느날..



주인님, 이러다간 안 되겠어요,
전 겨울되면 춥고 배고푸다구요,
주인님 돼지처럼 먹어대는게 벌써 몇 해째예요,



오호, 그 호숫가에서
일한다는 고년이 널 이렇게
물들여 놨군!



듣자하니, 거기선
"협동" 인지 뭔지 한다며?



일당 5길바르씩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에 1일은 쉬게 해
주시구요,

니가 기어이 내 판자집을 부수고 말겠다
이거냐? 밀린 나팔트값만 해도 얼마인데..
안 그래도 자꾸 값이 올라 죽겠는데...

일당 5길바르!
벼룩의 간을 빼 먹어라, 이놈아!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작정을
했나!

그러니까 야... 약을
덜 드시면 되잖아요,



1당 5길바르라...!



월신이지어,
악몽이 따로
없습니다!

니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한번 생각을.....

너한테 그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냐?



안돼요,
지금 당장 5길바르
주세요,



웃이랑 비누
사야 한단 말예요!

허엇! 역시 사치가 먼저로군!
그렇게 타락해서는 간음죄까지 저지르
겠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 그저 "셔츠"
가 필요한 거라구요..

넌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지,
월신 앞에 명목이 없구먼!

내가 이 세상의 악으로 부터
넌 지켜주겠다!

정 그렇다면
항아리는
주인님이
직접 만드세요.

배은망덕한것!
저가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줘야지,
먹여줘 재워줘,

약이나
먹자!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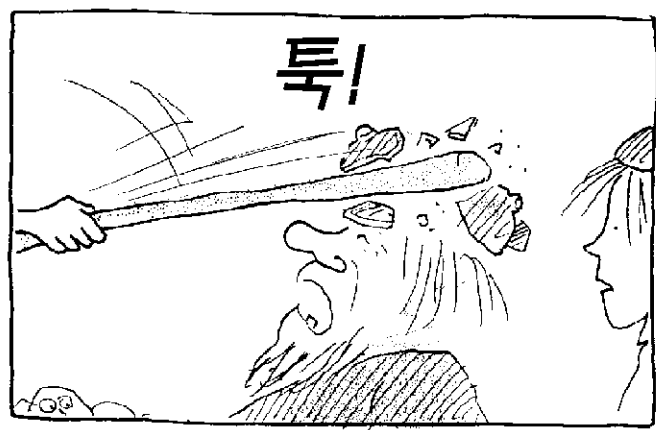
안셀름...
어서 내려와 모자 만들거라,
내일 부루투시안들이
오기로 했던 말이야,

1당 5길바르에
주당 1일 휴가
준다고 약속하세요,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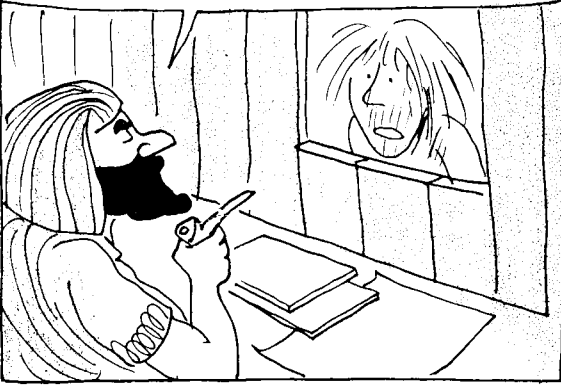
이 혁신적 기술의 발견은 한 동안 변두리안 익스부르의 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다.



고용시장

뭐라구? 도기제조공이라구요,
관심없수다, 근데 계산은
할수있소?

12진법은 소용없소,
지금은 10진법의 시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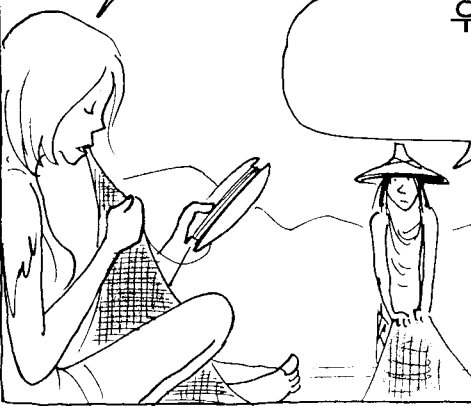
세상이 어찌나 빠르게 변하는지 도대체 따라 갈 수가 없는 걸,



랑물루가 실업자로 방황하는 동안, 소피아는 호숫가에서...

마르코보스케 우리가 쿠루미를 물리치고 호수를 점령하고 난 후,
무슨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 어부들은 계속해서 낚시를 하였으나
기생충 무리들의 출현으로 우리들의
생활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지,



우리의 "협통" 심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동무! 그런말 하는게 아니오, "협동"은 전쟁이오,
 생산의 전선에서 싸우시오,
 다른 동무들은 정치의식과 정책의 분야에서 싸우고 있소,
 우리는 계획 정치 체제하에 살고 있소, (*)



당신네 정치의식의 영웅들
 꿀 좀 한번 와서 보시죠,



보세요, 꿀 좋군요! 먹고 자고!

먹는게 아니라 맛을 보는 것이오,
 품질 관리중 이라고,
 나쁜 사고 방식을 가졌군!



품질 관리
 좋아하네!

한 명이 일을 하면
 열 명이 놓고 먹는데,

여기선 모두가 협동해서
 더 살기가 좋은 것이오,
 모두가 일자리를 갖고 있잖소,



부자들이
 없는걸,

조심해, 소피아!
 저 사람은 보안팀이야,
 위험하다구!

(*) 이 체제에선 모든것이, 즉, 생산, 봉급, 가격, 소비 등이 (자유경제 체제와는 반대로)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거라면 안 보고도 외울 정도예요, 우리가 혁명을 원한단 걸 하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쿠루미들을 죽였을 때에도 전 눈물 한방울 안 흘렸다구요, 정치에 그렇게 유식하신 분이,,,어째서 무능하고, 게으르고, 멍청한 이들이 새로이 카스트를 형성하는 것조차 못 막으시는 거죠?
 왜 저들은 생선의 몸등이를 갖고 우리는 머리 밖에 가질 수 없는 거죠?
 저들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특혜를 누리는 거냐구요?

동무는 반동적인 정신상태에 눈이 멀었어,
 한 가지 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오,

저 언덕 넘어 변두리아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있다구,

물론, 여긴 그 반대구요!



동무 너무 지나치오, 동무에
 관한 보고서를 올리겠소,

국민의 신이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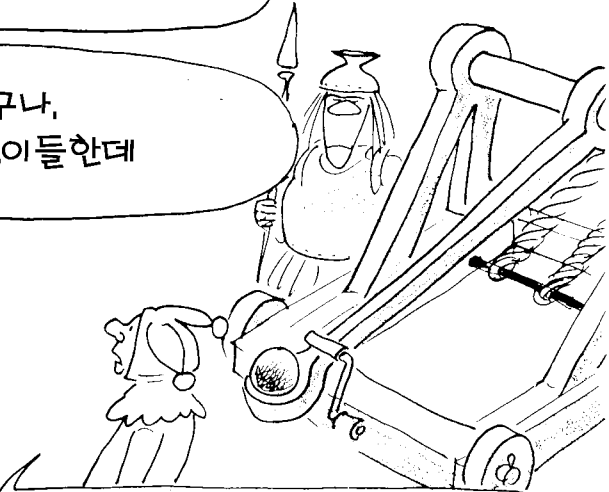




동부 쿠루미네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텐데....



다른 세금을 올려야 겠구나, 말라깽이들이나 수염쟁이들한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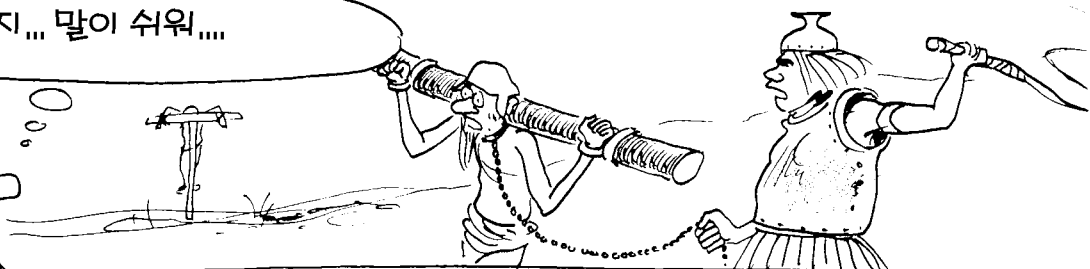


폐하,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읍니다, 좋지 않은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더 이상 화폐를 얇게 했다간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이봐라, 네가 경제부 장관이 아니더냐?
 네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말뚝형에 처하겠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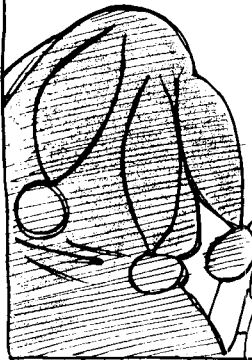
말이 쉽지... 말이 쉬워...



처형받는 자들이로군,
빈 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여봐라,
저자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잔고도 없이
수표를 썼답니다.



많은 이들이 광산에다가
금을 저축해 대니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게로군.



어떤이가 길바르와 같은 액수의 교환권 같은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그위에
싸인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이 것을 수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광산 동굴 은행에 있는 길바르 보다 많은
액수의 수표를 썼으니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표로 길바르를 바꾸러 광산에
간다는 얘기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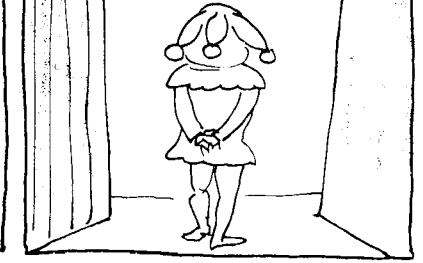
음하하하하

고맙네, 나한테이 정보를 제공하느라 수고 많았을 텐데
어서 가서 쉬거라.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간
나도 저 꼴 나겠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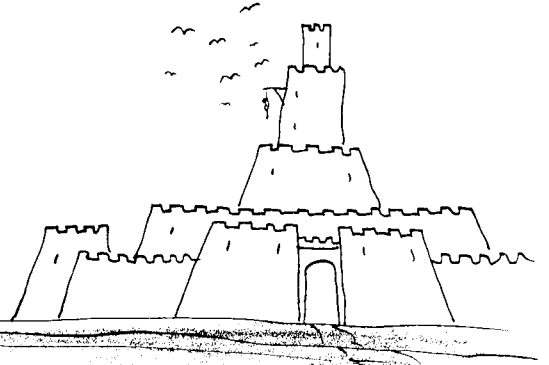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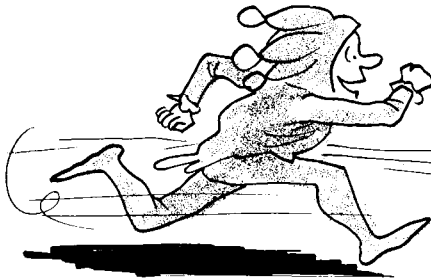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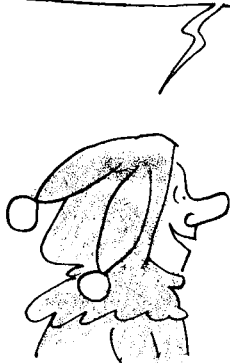
그런데..!

바로 이거야!!!



지 폐

폐하, 이제 곧 변두리아 은행을
개점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래서?
관심없는 걸,
불필요한 걱정거리만
더 생길텐데 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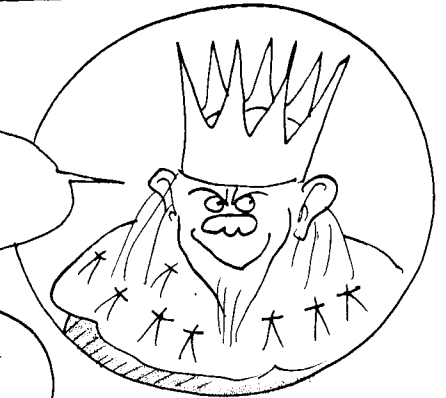
그리고 수표를 상용화 하게
되었사옵니다.

우선 저희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금 부터 모아 들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장려해 가면서,.... 그리고 그 "길바르에 상당하는 교환권" 이란 종이를 내 주는 것입죠, 그런 다음 이것들만 유통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요,



그런다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질 않는가?

아 잠깐, 이제가 슬슬 이해가 될 것 같아.



우리도 "종이 길바르" 를 조금씩 유통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금 길바르" 보다 많은 테니깐 말이 옵니다.



음... 이제 우리 금 길바르가 점점 가벼워 지는게 확히 보이고 있는데, 허나 어느 누가 알겠어? 우리가 이 많은 종이 화폐를 만든다는 사실을...

역사상 전례없는 가장 멋진 사업이 되겠는 걸...

원숭이 화폐입죠!



에고, 이런 실수를...

뭐이야?!...

아,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폐하.

잠깐, 그런데 우리가 종이 길바르를 많이 발행하면, 아무리 멍청한 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 챌 텐데,
게다가 종이 길바르가 금 길바르보다 훨씬 더 많다면 모두 한꺼번에 1대 1로 동량을 유지하면서 교환이 불가능 할 텐데...

잊지말라구, 내가 이 교환을 거절할 때도 있을 거라구.

공황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폐하,
국민들이 종이 화폐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금 길바르보다 두배 많은 양의 종이 길바르를 유통시킬 경우, 금 하나당 종이 한장씩 주면 되질 않는가?

방법을 알아 냈사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금 길바르를 가져오면 그 길바르들을 녹이는 겁니다.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듯 하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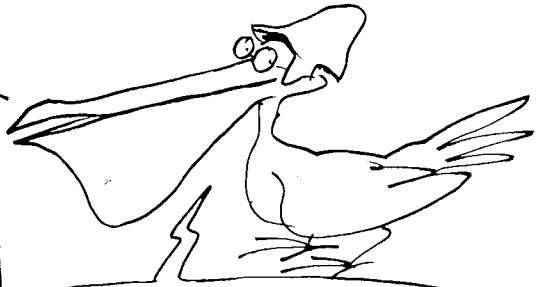
그러면 어찌된단 말인가?

그야말로 황금이 되는 겁니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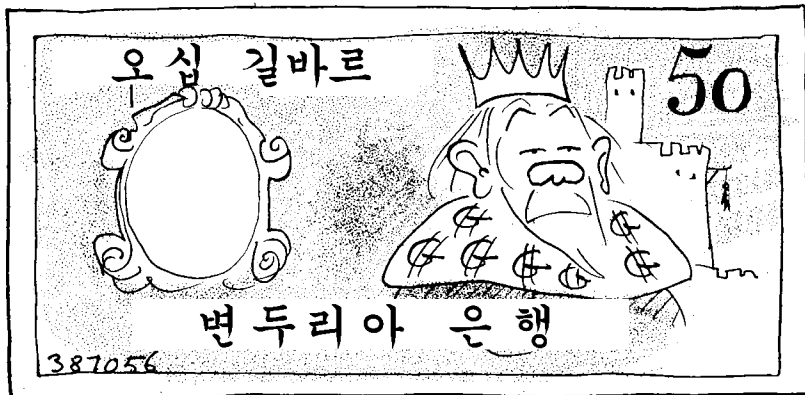
그리하여 잔고도 없이 변두리아 왕국의 역사상 가장 큰 수표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갔다. 백성들이 가져온 길바르들은 모두 녹여져서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금 길바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뉴미스왕은 엄청난 량의 지폐를 발행하였으며, 사람들은 그것으로 여기 저기서 너도 나도 물건들을 사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되었고 금 값 또한 올랐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더욱 비싸져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옛 변두리안 화폐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변두리아의 모든 백성들을
처형장에 보내버리게 될 이 활동은
경제로 다시 불리워진다.



당연히 뉴미스왕은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모방하려는 자들을
혹독하게 처벌하였지.



옛날에는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면 조세를 올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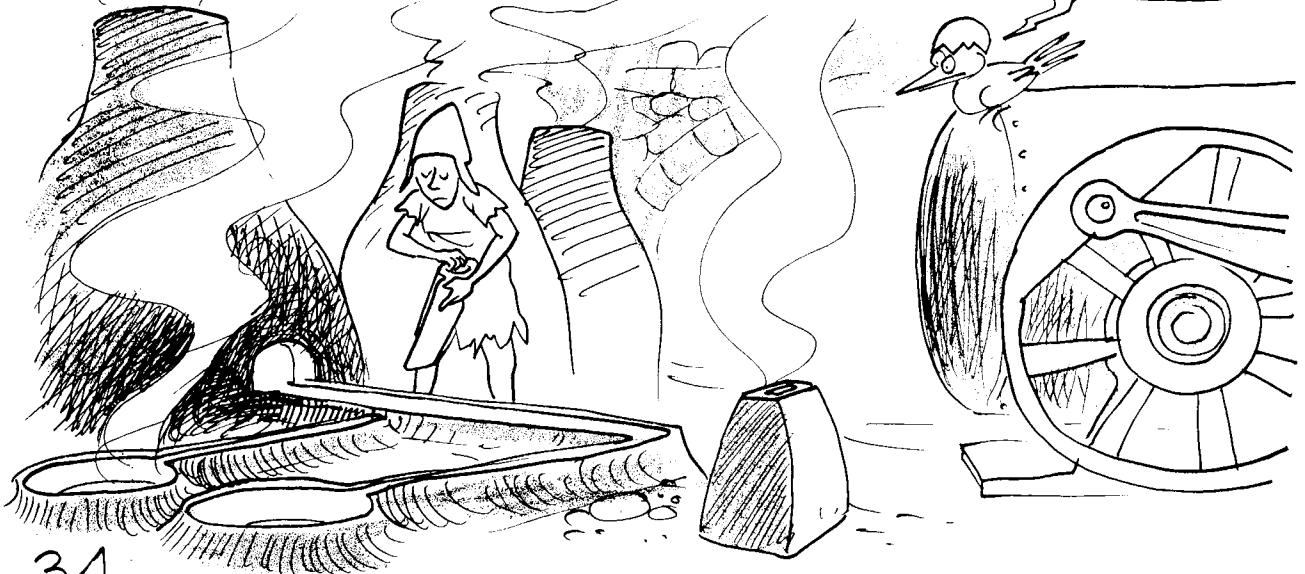
야만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뉴미스는 이 조세 정책을 고수 하였다, 그런데 총 통화량의 증가 덕에
자신이 조장했던 물가상승 속에서도 지폐의 부족을 전혀 겪지 않게 되었다,
자연히 이 경우에도 물가는 한 없이 오르고 올라지,



산업시대의 출발점이 된 이 변두리아의 경제 활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수 많은 공장들이 건설되고 변두리아 국민들은 그곳에서
봉급을 받고 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두는 뉴미스 왕과 그의 친지들의 명의로 세워지거나
사들여 졌다, 물론,,, 이 지폐들로,



물가가 오르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 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폭력시위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동안은 모두가 더욱 부자가 된듯 해 보였다.

이제야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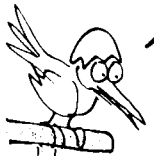
야훗,
우리가 이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상점 앞에서 둘러 줄을 서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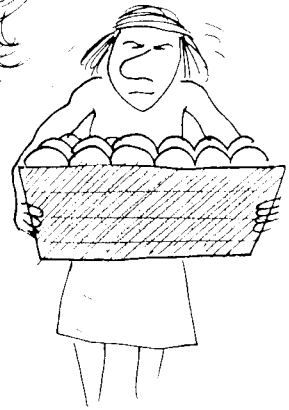
어느날 이익을 극대화 할 궁리를 하던 상인이 가격을 올리기로 결심 하였다.



~~800G~~
900G

계속해서 물건을 사러
몰려오는 것은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 월의 법칙!

올려주기로 하셨던
점원들 임금도 같이
계산 하세요.



변화가 와도 매번 똑같이

도무지 이해가 안돼!

200길바르!
난 10년 전에 5 길바르씩
받고 일했다구!

가격이
얼마인 지나
아세요?



정말 끔찍한
시대야!

세상이
어찌 될려고
이러는 건지,

소피아 ...

각종 미약 취급...

?

소피아!

안셀름!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거야?

보면 몰라, 진로를 바꿨잖니.

평행선 과학에 관한
연수를 받았어.

초심리학이 어디가
나쁘단 거야?

그러니까 뭐...
요술쟁이 같은거야?

함부로 말하지 좀 마!



수면제, 안정제, 비타민, 꿈...
뭐 그런 것들 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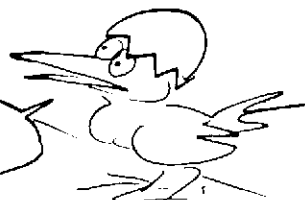


되기는 하는거야?



뭐 일단 밥 굶의 걱정은
없어. 수입이 육십만
길바르가 넘어.

육십만 길바르!



그래서... 이것 다 믿는단
거야?



뭘하든 잘 먹고 사는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부자든 가난뱅이든
돈이 최고 아니겠어?

오호오호!

이 썩어빠진 세상에 사람들
돈 뜯어먹는 방법은 이 방법
뿐이더라구...

한 번 해보지 않을래?

에...
아니

천가지
저렴한
요리법

하... 함께

천가지
저렴한
요리법

결국은...

이 부분은 베일에
가려 두자구.





아, 그차!

이 미래 나무 약초가
너희들을 미래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지,

그리고
또!!!



이건 과학이라구!
파란셀서스(*)가 말하길....!

말도 안돼!



어떻게 된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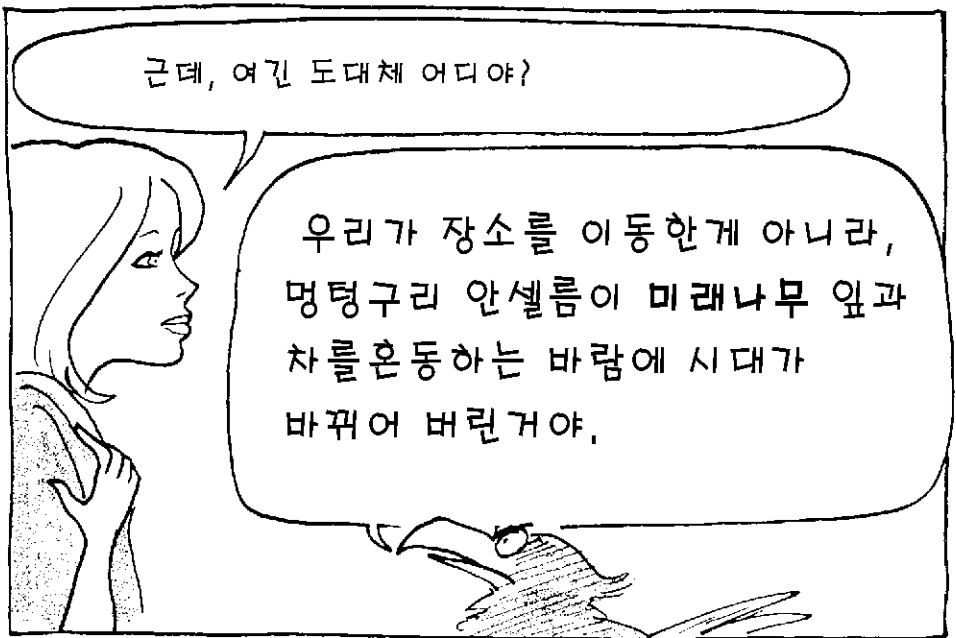
파란셀서스가
뭐랬단데?

(*) 유명한 연금술사



소피아?

나 여겼어.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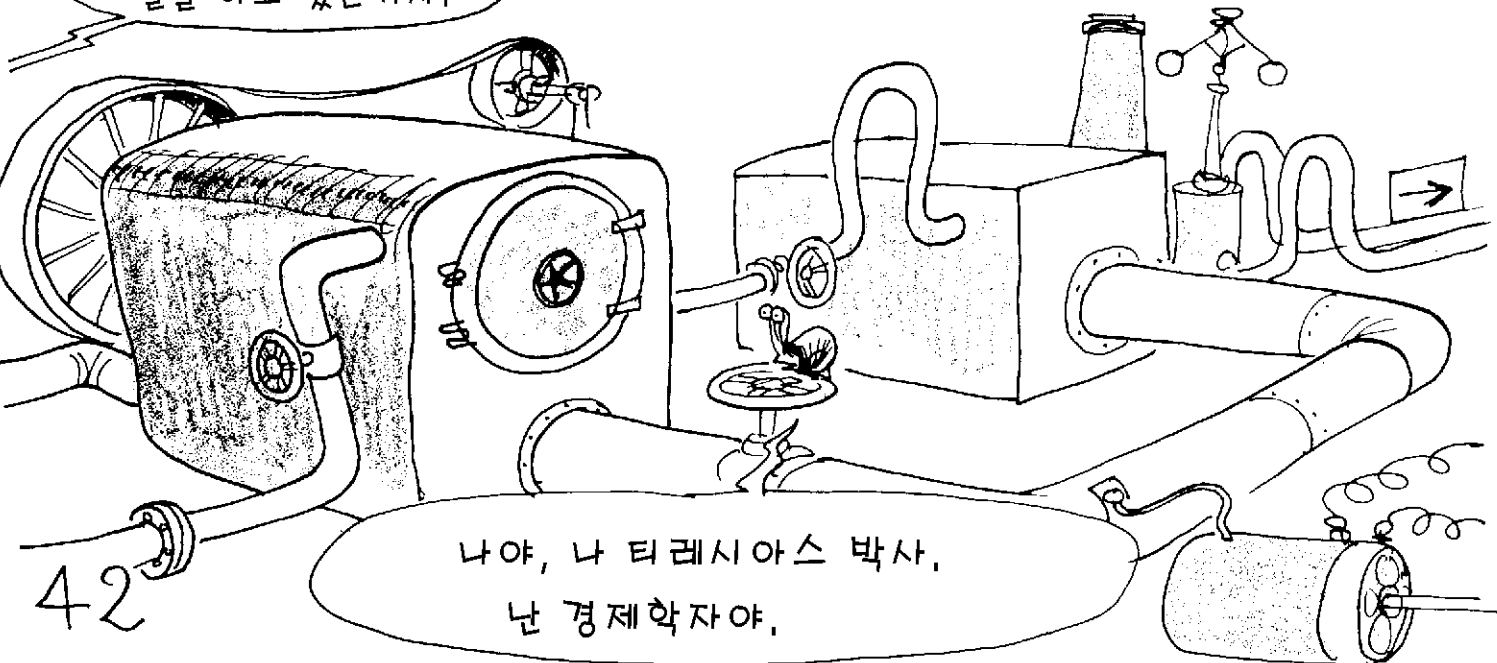
우리가 장소를 이동한게 아니라,
멍텅구리 안셀름이 미래나무 앞과
차를 혼동하는 바람에 시대가
바뀌어 버린거야.



모두들 저기 기계들 봤어?

그게 어땠단 거야? 경제머신
처음 봐?

도대체 누가
말을 하고 있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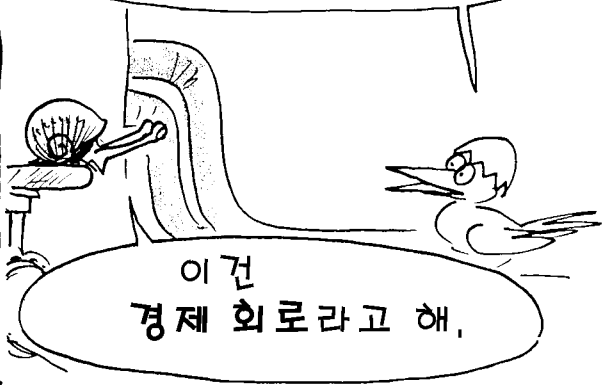
나야, 나 티레시아스 박사,
난 경제학자야.

그럼 박사님이 이 기계를
발명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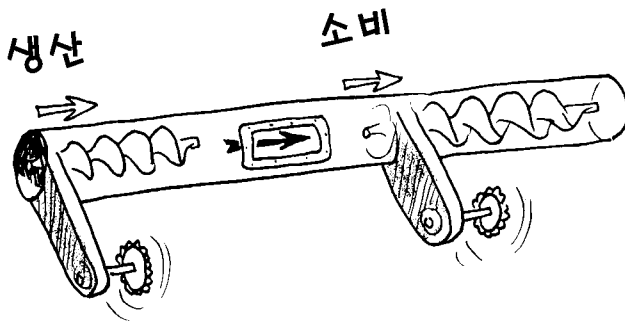


신이 만드셨어,
난 그저 연구만 했을뿐야.

이 구불구불한 건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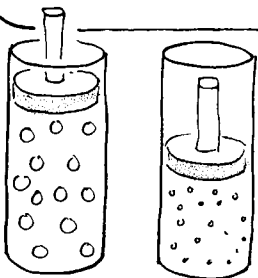


이건
경제 회로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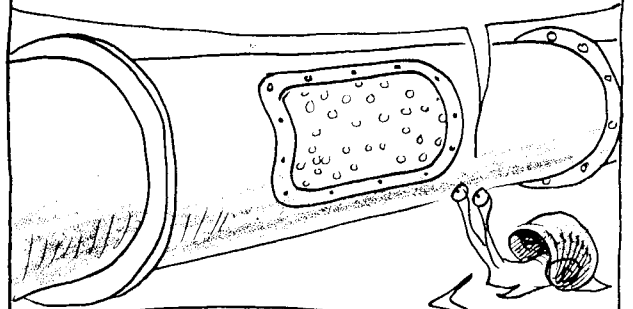


이 파이프 속에서
경제유체인 돈은 두가지
형태의 나선 양수기 펌프에
의해 이동되는데, 뒤에서
지지하는 펌프는
생산펌프이고 그 지지를
받는 펌프는 소비펌프야.

돈이란 에르골*
과 공기의 유체인데,
에르골은 압축할 수 없는
유동체지만, 기포들이
돈을 압축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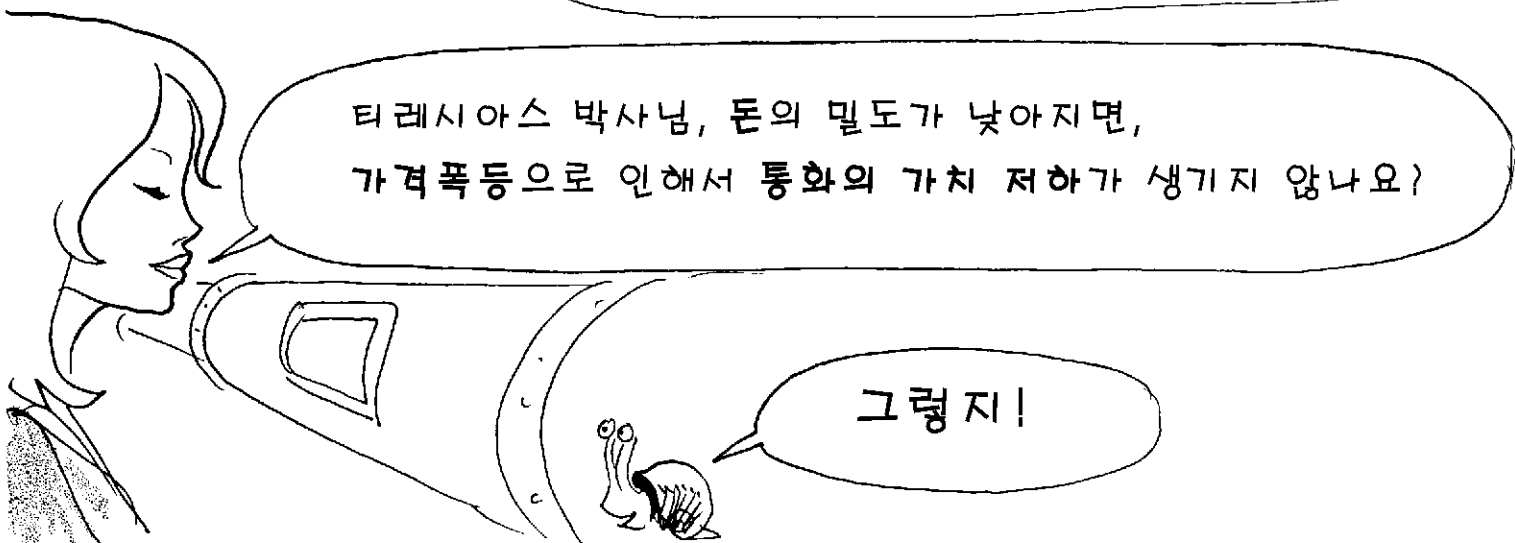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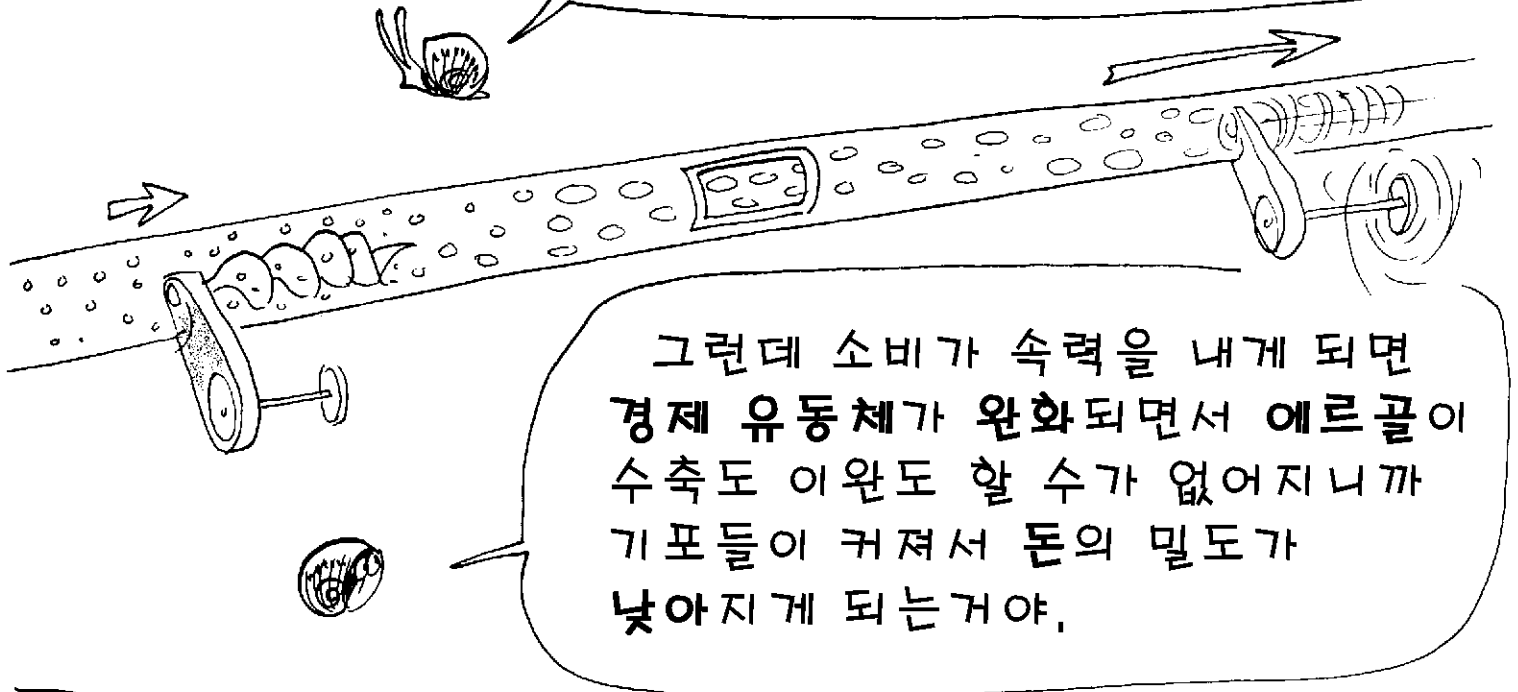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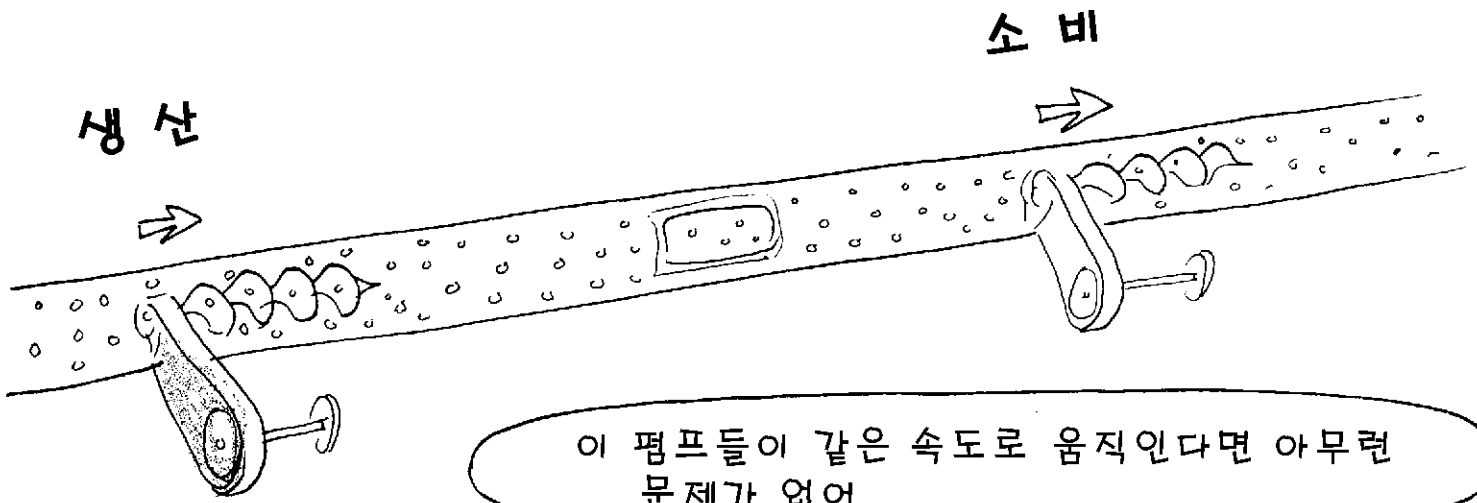
생산 펌프와 소비펌프 사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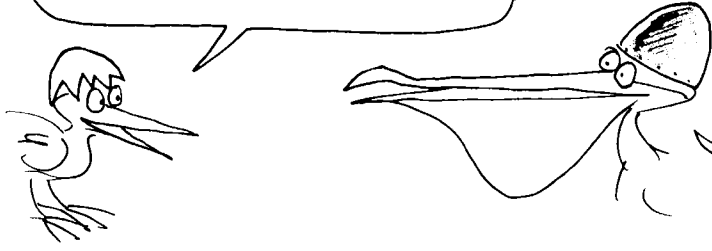
이 창문을 통해서
경제 유동체의 밀도를
관찰 할 수가 있어.

(*) ERGOL의 어원은 ERGOS로
그리스어로 '일'을 의미함.

제 1 돈 역학의 법칙



생산 펌프는 공급 체제인 반면,
소비 펌프는 수요 체제인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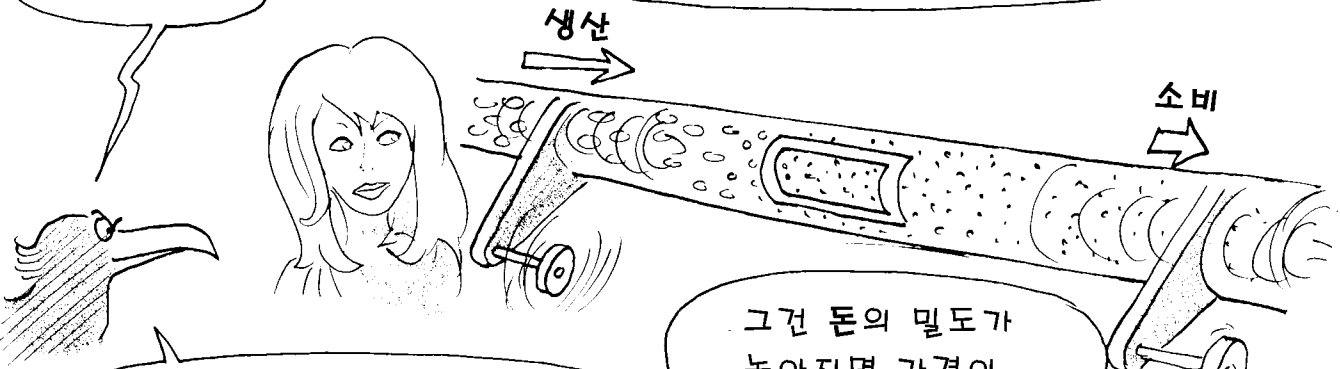


이 두 체제가 균형을 이루거나
동일한 주기로 움직일 때
돈은 같은 밀도를 유지하니까
가격이 안정되는 거구나,



소비 펌프가 "더 빨리" 움직여서
생산주기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돈은 이완되면서 밀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상승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소비가 속도를 늦추나요?

그건 돈의 밀도가
높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

마찬가지로 소비의 주기가
일정할 때는 생산이 느려지면
돈이 이완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속력을 내면 과잉생산으로
돈을 압축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따라서 가격은 소비와 생산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로구나.

생산 펌프와
소비 펌프 사이에
에르골 덩어리가
매 초마다 지나가고
있어.

소비펌프와 에르골 덩어리의 유출량의
관계를 가격지표라고 한단다.

이 경제머신을 좀 더 가까이서
볼까.

영원히 불변하는 기계
같은데..

생산기

소비 엔진

공급 폭지

가격지표

유통 회로

구매력 측정계

원동기
+ 발전기

그렇진 않아,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야,

그런줄
알았는데...

파이프 내부의 마찰로 전선 내 에너지 손실이 생긴단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작동을 할 수 없는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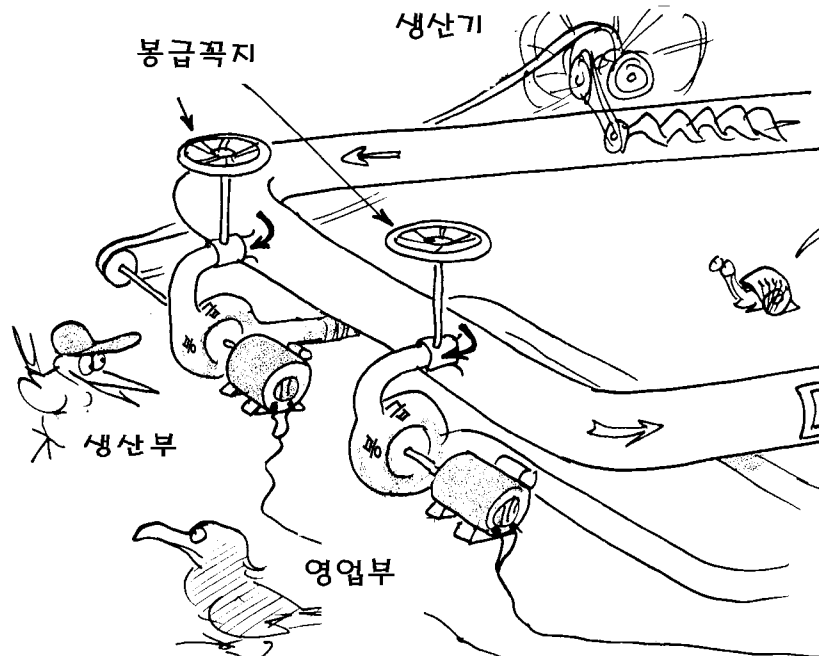
제 2 돈 역학의 법칙

두번째 돈역학의 법칙은
따라서 "절연된 경제머신은
존재할 수 없다" 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팔고 유통시키기만
할 수 없단다,
원자재와 에너지가 뒷받침되고
생산 활동이란 것이 선행되어
져야 하는거야,

그거야
당연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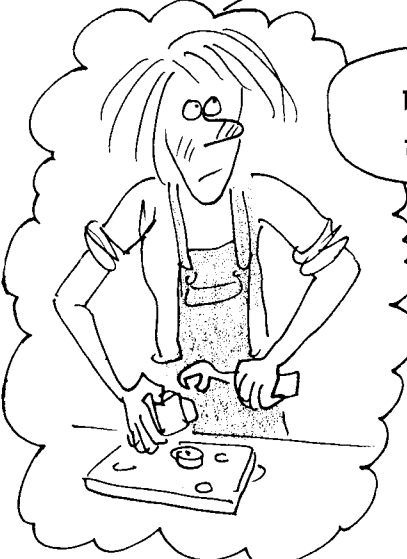
생산부와 비생산부



돈의 일부분이 보증
원동기 속으로 표류되어
소비 발전기를 작동
시키고 있어.

일부는 생산기에 직접
연결되어 보증 생산부를
구성하고 있구.

따라서 노동자들은 일년내내 이 원동기를 돌려야
하는단.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 거지?

생산성



자, 이게 바로 생산기다,
경제 활동의 일차 펌프이지,

이 경제 활동의
척도는 뭔가요?

$$\text{경제활동} = 2/1 \text{ 총 에르골} \times (\text{유통 속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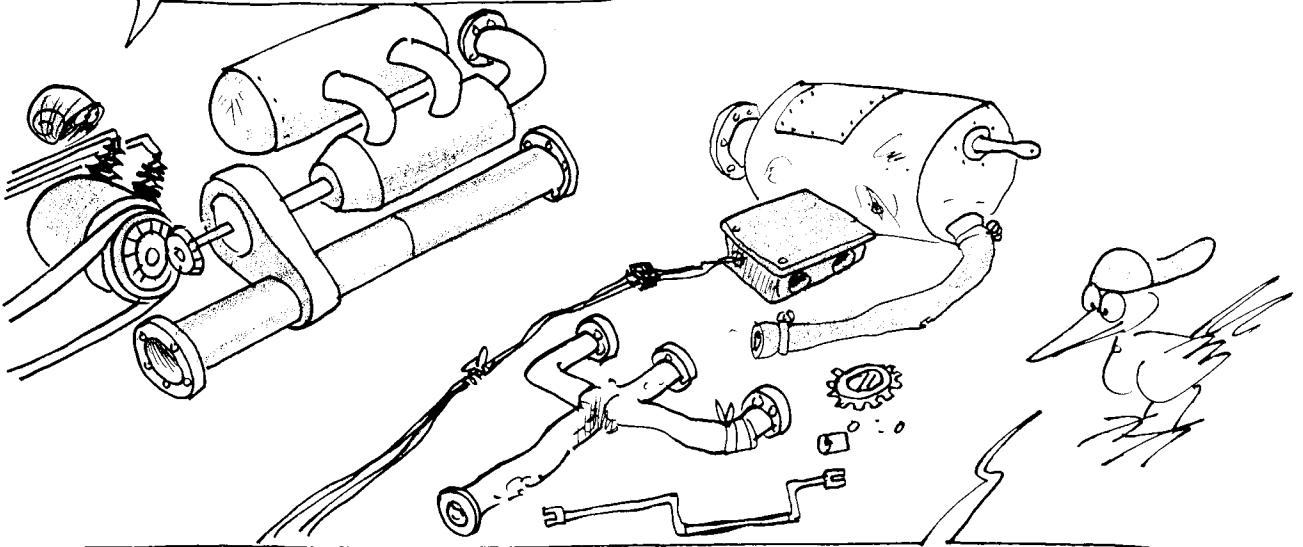
한마디로 강력한 힘이군!



경제 압력의 척도 단위는 바(Bar)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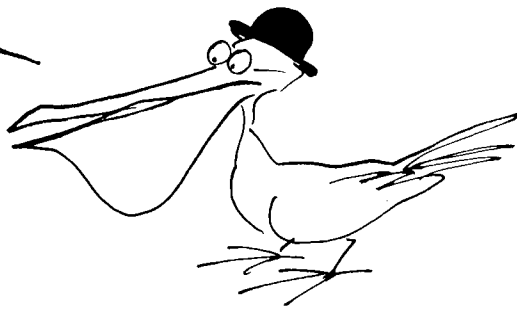
그럼 바로미터로
측정하는건가요?

경제 활동을 증진시키려면 총 에르골 덩어리,
즉, 제공된일의 양을 증대 시키면 돼,
그렇지만, 일의 방식을 개선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
생산성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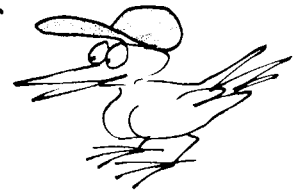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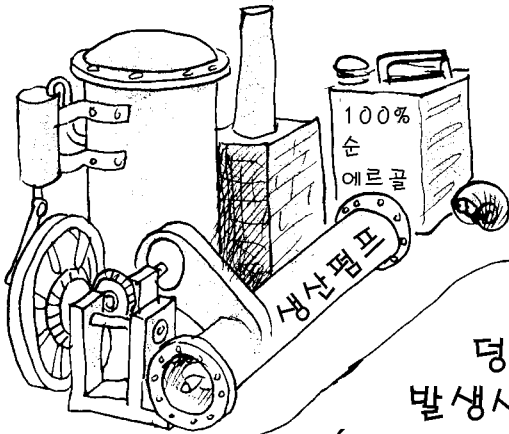
그럼, 낡은 설비들을 두 세배로 늘리는 것보다,
큰 직경의 파이프와 강력한 전선으로 된 보다 크면서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낫겠군.

한가지 의문점은...
이 전체 경제머신에서
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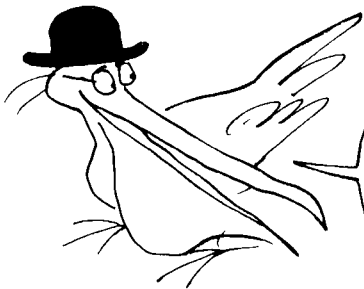


경제 성장과 총 통화량

실질 경제 체제에서는 에르골 덩어리가 이 안에서 순환하고 있는 거야, 돈의 심한 마찰과 노동력, 그리고 에르골의 순환속도로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이 기계에 만약 또 다른 생산 개체를 추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생산도구에는 푹푹 몽친 에르골의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노동력 증대를 발생시켜 자연스럽게 돈의 밀도를 높이고 있어, (따라서 가격 하락이 하락됨,) 그래서 성장기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포를, 즉 통화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분명히 거기다 시치미 뚝 떼고 얹쳐처럼 매년 조금씩 더 넣었을 거라 장담한다.
봉급인상 만회하려고 말야,

좋아, 자 그럼 우린 지금 성장기에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막스 년 생산부 직원 역할을 하고, 알베르 년 비생산부
직원 인거야.

왜 난 비생산부야...?

그래 니가 영업 관리부
하면 되잖아.

자, 이제 생산머신에 새로운 개체가
하나 더 추가 되었어,
잘 돌아가고 있구나. 경제 압력바가 +12
를 기록하고 있어.

이 새로운 개체의 추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이
줄어들게 될거야,
하지만, 임금이 더욱 많이
요구되겠지.

유량을
증가시키도록!

좋아, 유량을 증가
시키고 있어.

가격... 천천히...
잘 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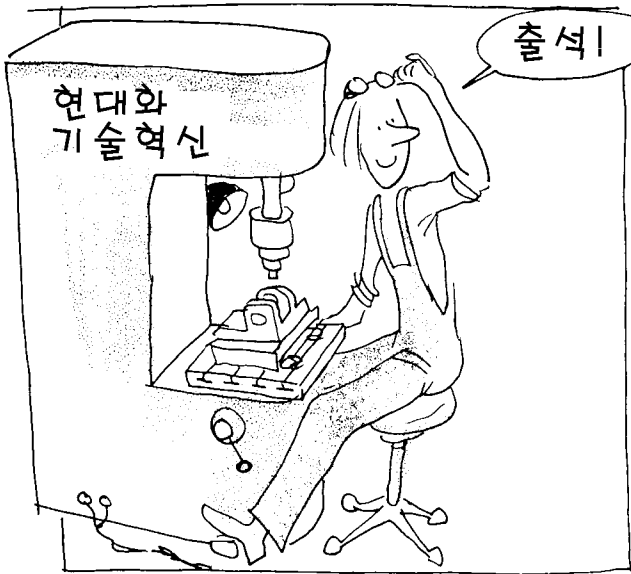
농도도 짙어지고
있구, 유통회로에
큰 손실 없이.

유통 펌프엔 에르골의 유량이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어.

그런데 이 신 개체는
저절로 만들어 진게
아닐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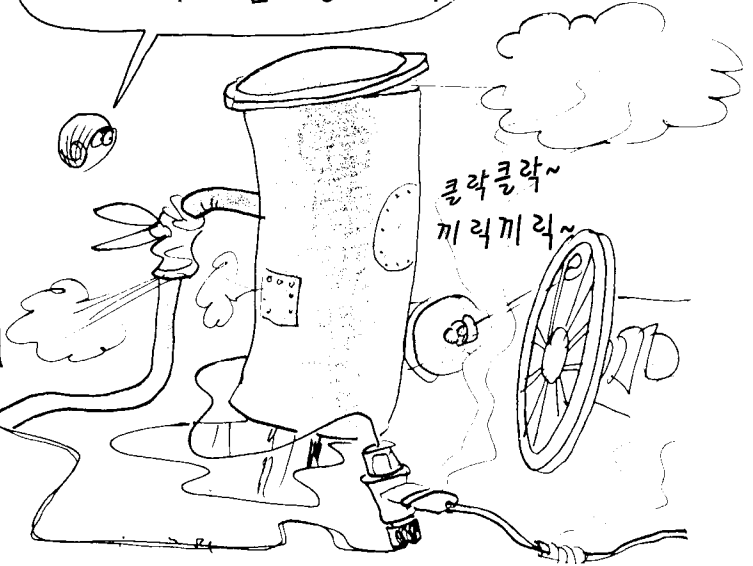
맞았어, 생산기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을
위해서 돈의 일부를
떼어내야 해,

투자



출식!

이러한 노력은 계속
적으로 지속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낡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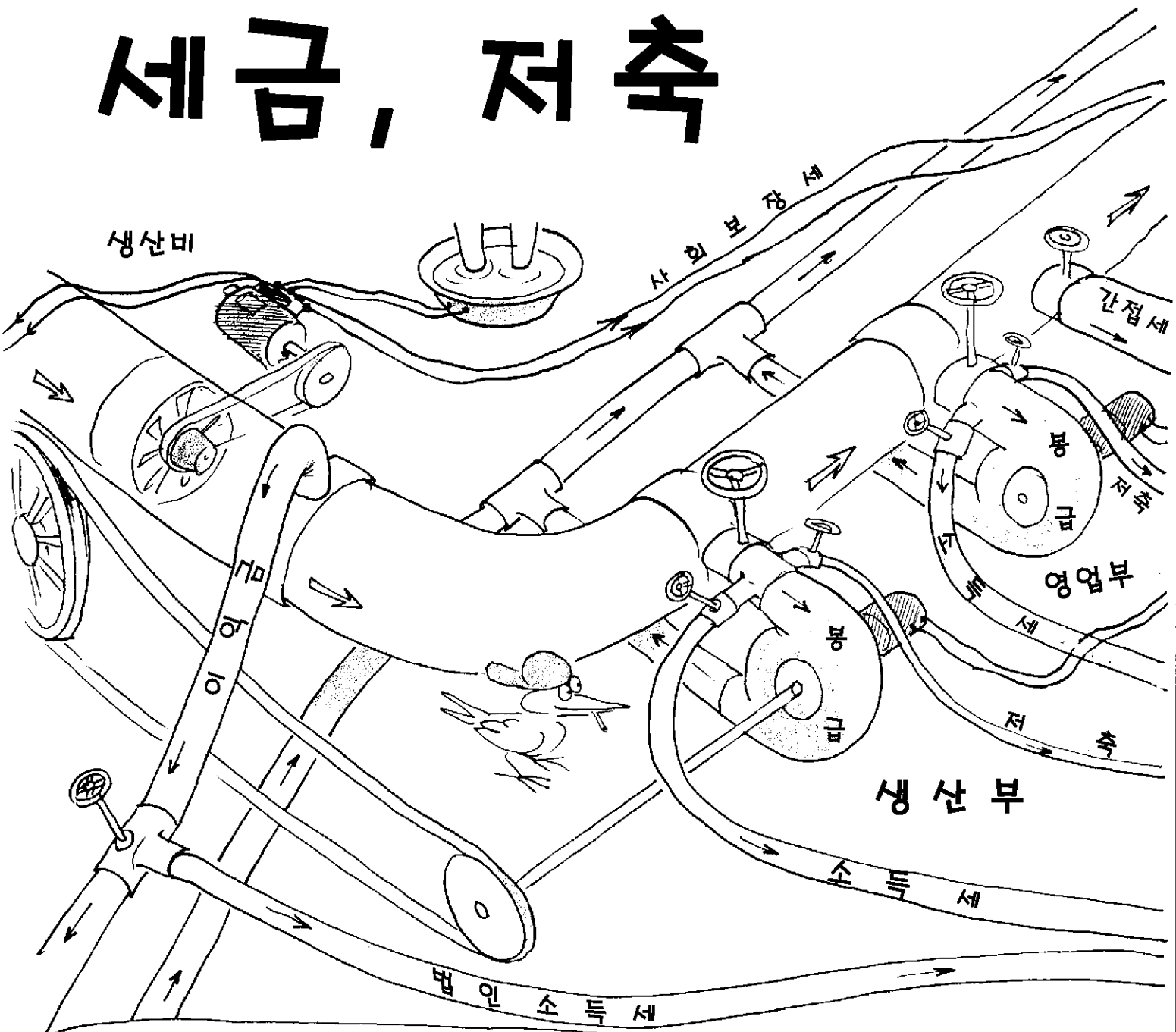
클락클락~
끼릭끼릭~

큰일났네...

회로가
막혔어,

전기회로 (유통망)끼리 얽히고 설키고
여기 저기서 다 새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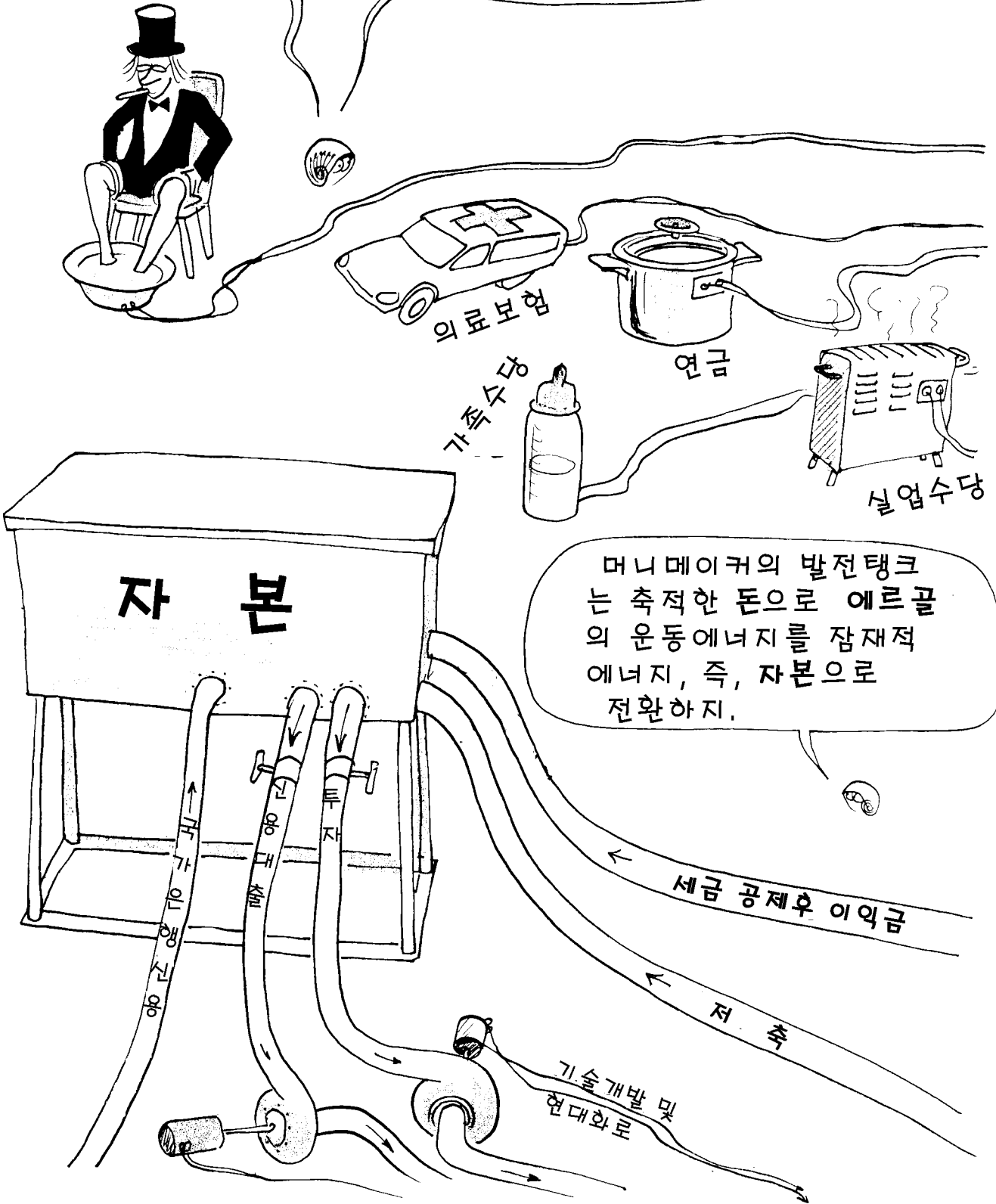
자본, 이익, 세금, 저축



이렇게 돈의 흐름은 여러 비용으로 손실 또는 전환되고 있어, 생산펌프의 도움으로 에르골이 생산기에 연결된 원동기를 작동 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추출된 에너지들은, 일부는 사회보장세라 불리는 회로로, 일부는 생산비로 보내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머니메이커씨 즉옥물을 데우는데 쓰여지지,

일부는 이쪽
머니메이커한테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사회보장제 회로로...



머니메이커의 발전탱크
는 축적한 돈으로 에르골
의 운동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 즉, 자본으로
전환하지.

자
본

의료보험

연금

가족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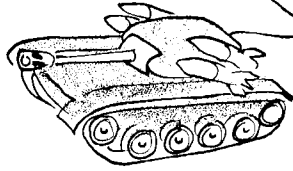
실업수당

세금 공제후 이익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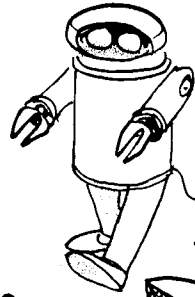
저축

기술개발 및
현대화로

아, 국가 지출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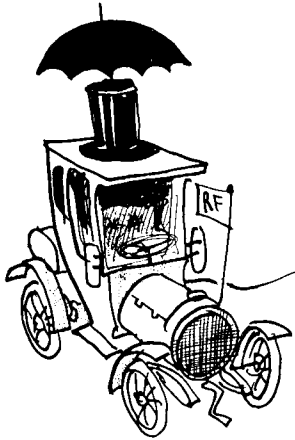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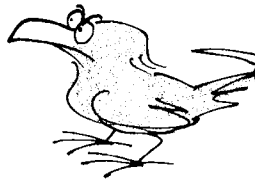
교육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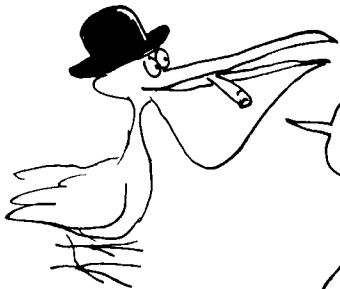
사회



이건 분명 국가의
수레궤지



근데, 저축과 신용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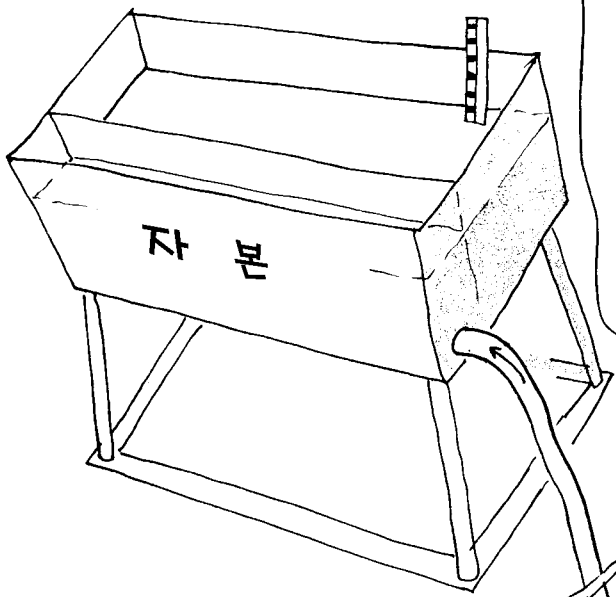


자본 발전탱크와 국고 발전탱크에는 모두 제어
기능이 있어, 모두들 경제머신이 불안정한걸
보았지, 그 이유는 바로, 생산과 소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소비가 항상 과도하게 작용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직원들의 돈을 발전탱크에 넣도록
장려하는 거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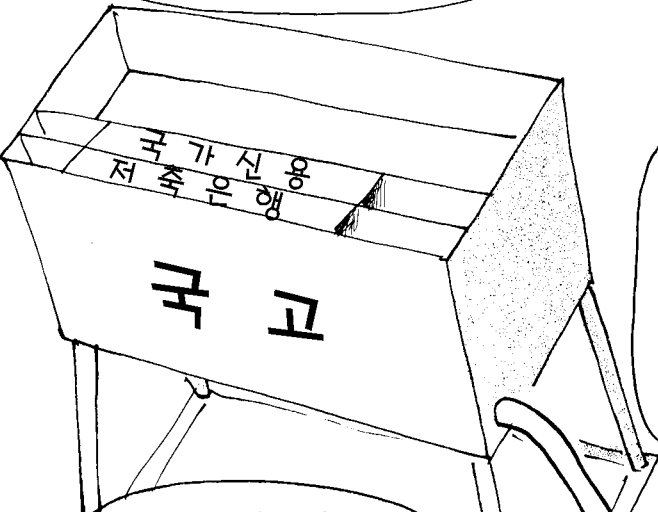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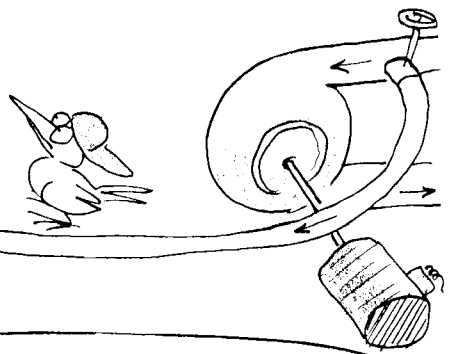


이 멋진 경제성장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있겠습니까, 당신께 제 자본 탱크의 특별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당신의 자본들 넣어 두시면 곧 전체 자본의 양 만큼 증가 할 것입니다,



밑질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일정수준의 연수입을 보장해 드릴테니 돈만 많이 갖고 오십쇼,

이 예금으로 우리는 재투자하여 경제머신을 현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걱정마시고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일정수준의 연수입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저축금을 장기간 저한테 맡기시면 약간의 세금을 공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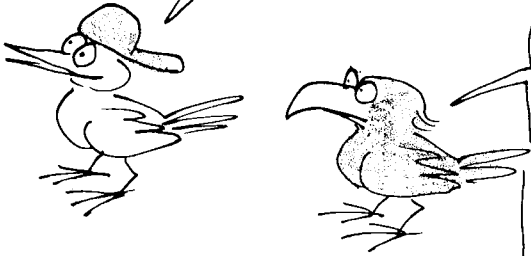
당신의 예금으로 우리는 경제머신을 현대화 하는데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얼마 후...

이것봐, 얼마되진 않지만
그래도 양적으로는 약간은
벌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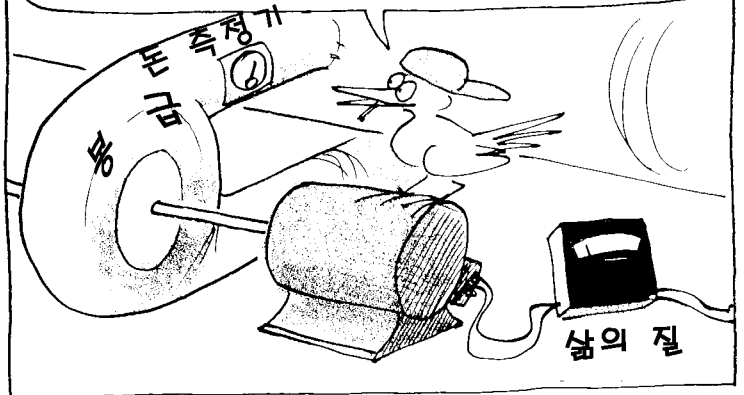
넌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경제
활동이 발달하고 있고, 생산의 신
개체는 총 에르골 양의 증가로
운영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도 기포를 많이 생성시켜서 돈의
밀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잖아,
결국 넌 잃고 있는 거라구.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번 것 중에 에르골의 양,
즉, 그 덩어리 부분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의 급여는 올랐는걸,
보라구...유량이 두배로 증가했어.



하지만, 니가 돌리고
있는건 바람이야, 돈은 점점 더
농도가 떨어지고 있어,
농도를 보라구!



소비펌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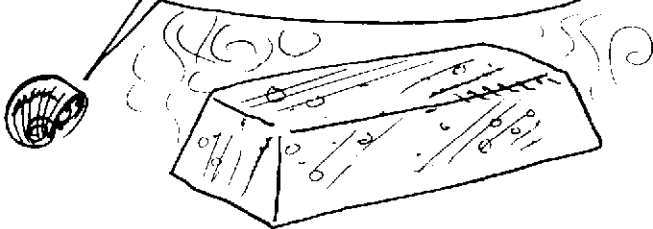
아주 죄금 올랐네...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여기 한가득 있는 돈의 양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에르골 양의 증가야,
마찬가지로, 삶의 질의 증가도 유량(봉급)이 아니라 농도(구매력)가
결정한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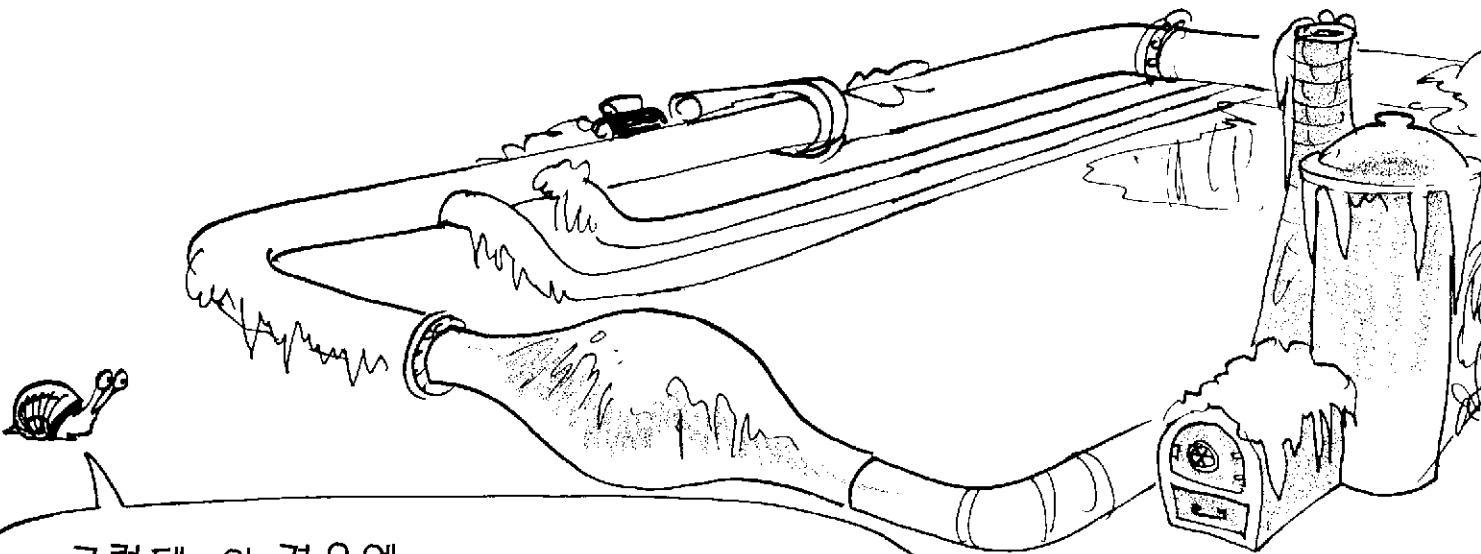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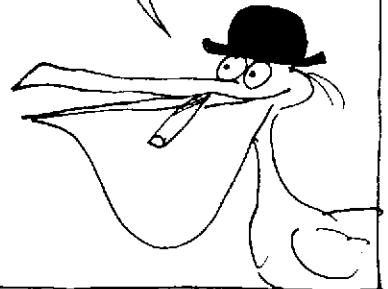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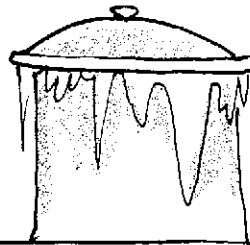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을수는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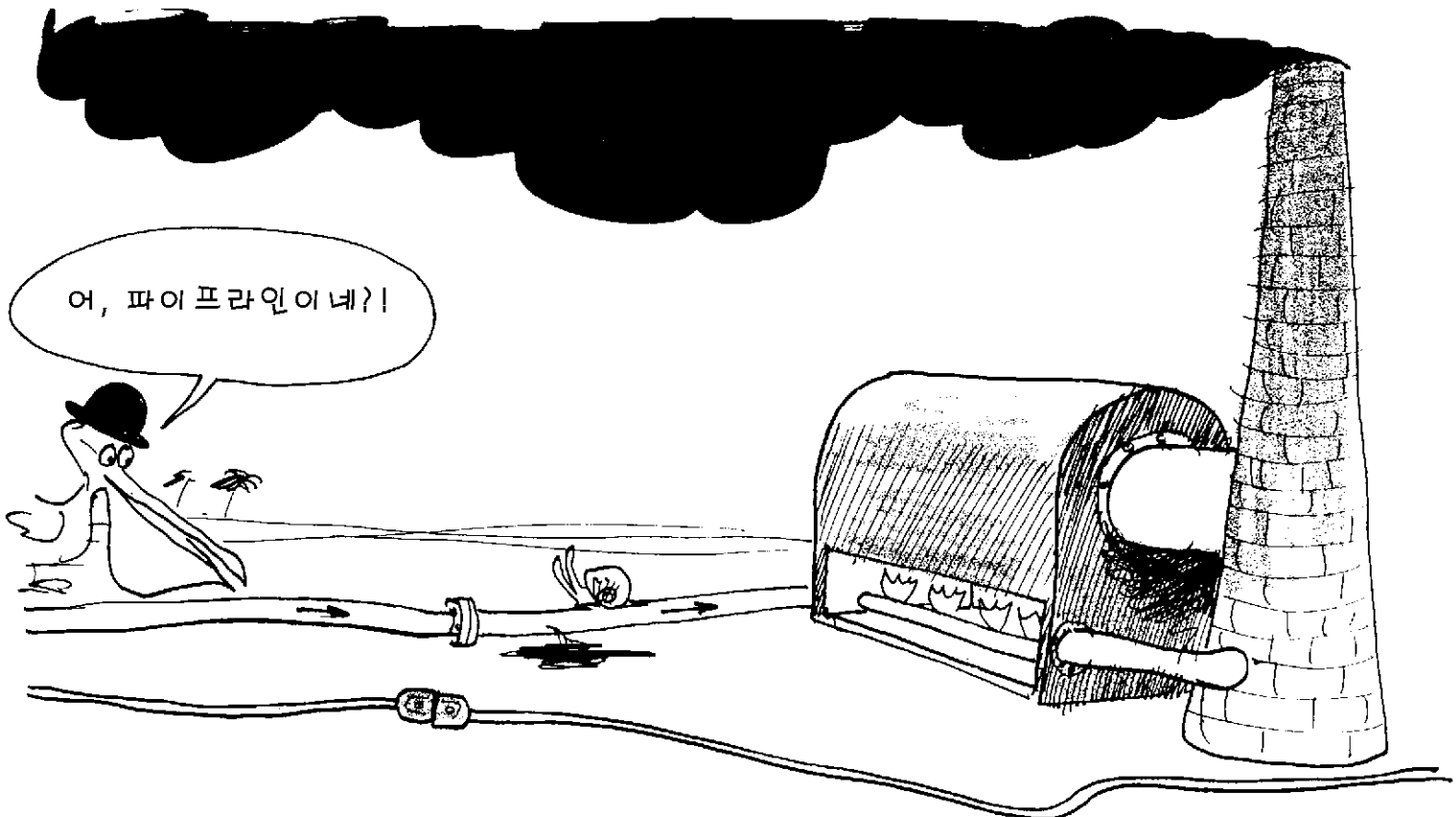
돈을 축적하려면
이 끈질긴 덩어리들을
얼려버리면 그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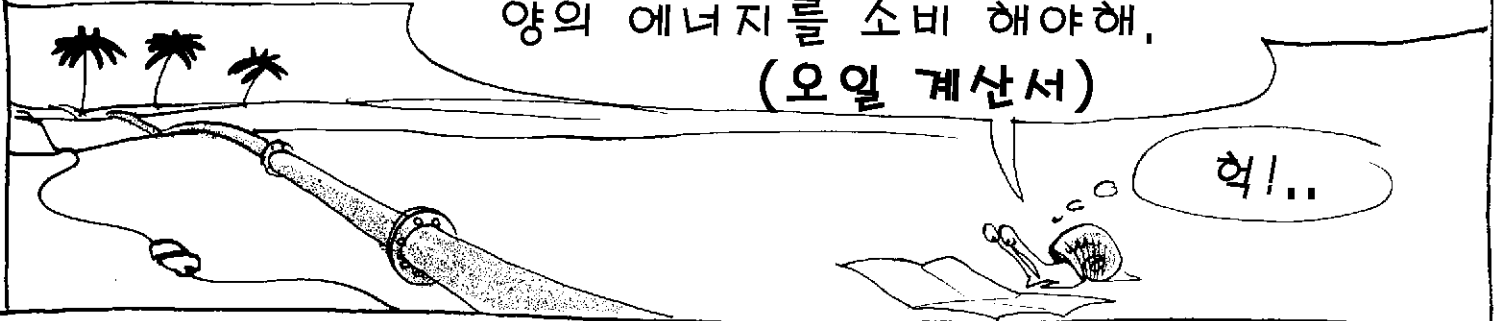
좋은 생각이야!
물가상승을 피하려면,
경제를 좀먹는 이 악들을
얼려 버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 경우엔
유동성있는 돈의 이점을 잃게돼,
자본 얼음이 경제 머신을 완전히 정지시켜 버리기 때문이지.



경제 머신의 보일러는 저 멀리 사막에서 가져온, 고귀한 액체로 가열되고 있는데, 이 액체를 가져오려면 아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 해야해,
(오일 계산서)



사막에서 부터 끌어온 이 하나의 튜브로 소비펌프를 어느 정도 충당시킬 수 있어. (수출(*))



(*) 경제의 국제화는 다음 앨범 국제 인프라트론에서 다시 다루어짐.

오일쇼크

어, 시니스터다!

어디 뭐가 왔나
한번 볼까...



뭐야, 물이 차갑잖아!

당연하지,
모든 전기가 생산비 라인에
영여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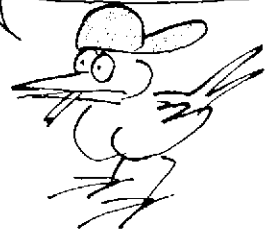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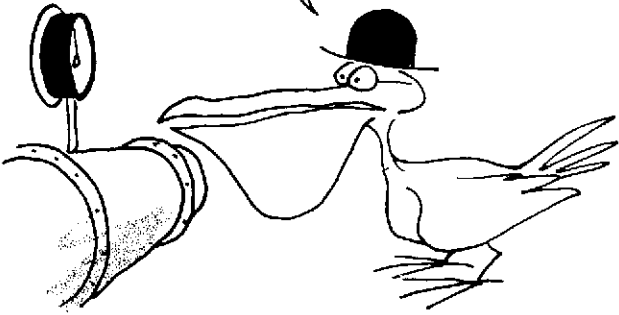
생산비

사회보장세

얘들아, 회전속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낮아지고 있어,

어떻게
된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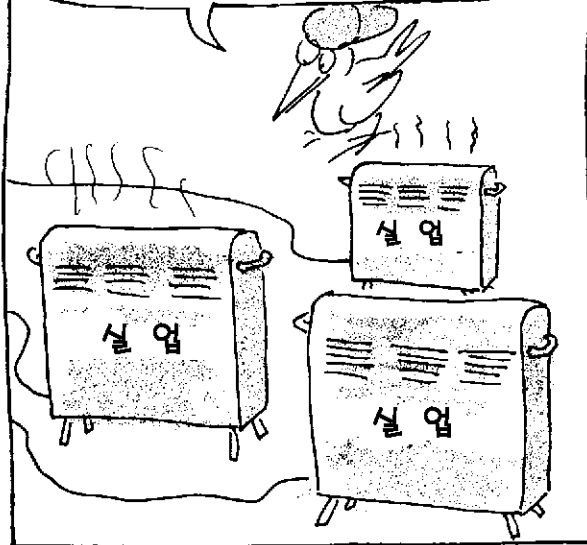
머니메이커가
수익성 없는 생산 개체들을
모두 잠궈버렸어,



실업이 늘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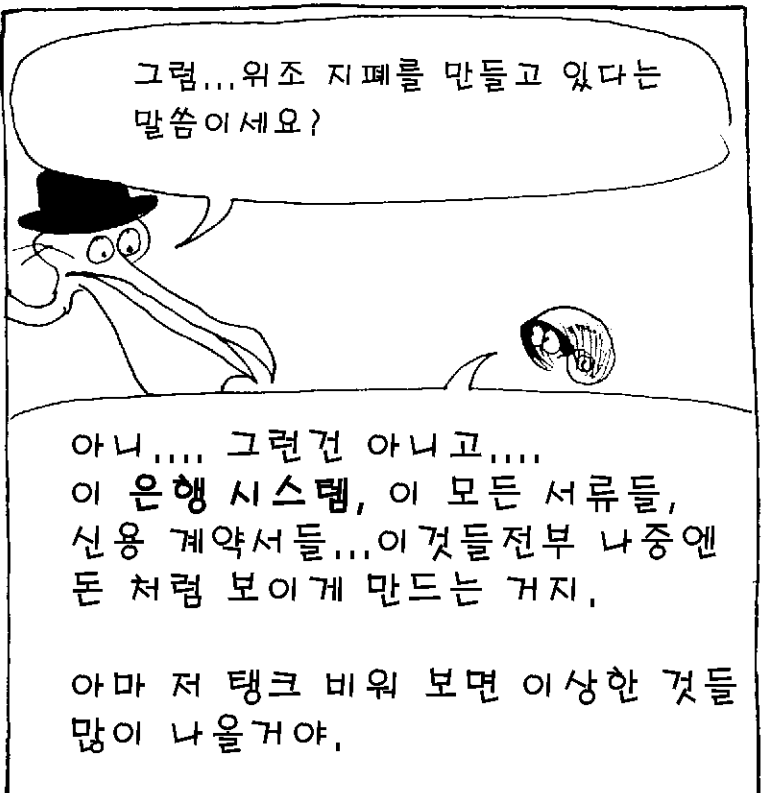
여기서 뭘하고 있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다 사두는 거야,
저축한 것들로 다 빼서
신용받고 있어,



머니메이커 재 저기서 뭘하는거지?

그럼... 위조 지폐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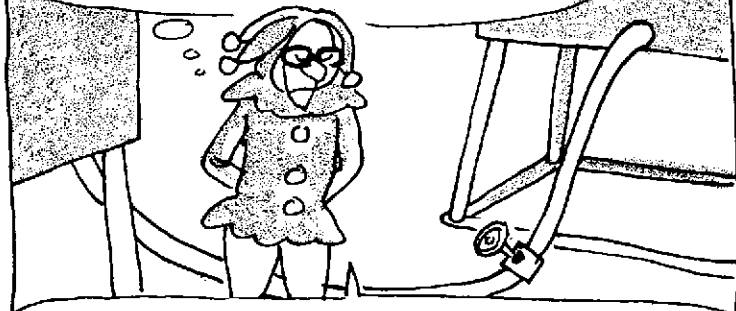


내 생각엔 탱크에 몰래 바람 넣는거
같은데.... (신용으로 인한 물가상승)

아니.... 그런건 아니고....
이 은행 시스템, 이 모든 서류들,
신용 계약서들... 이것들 전부 나중에
돈 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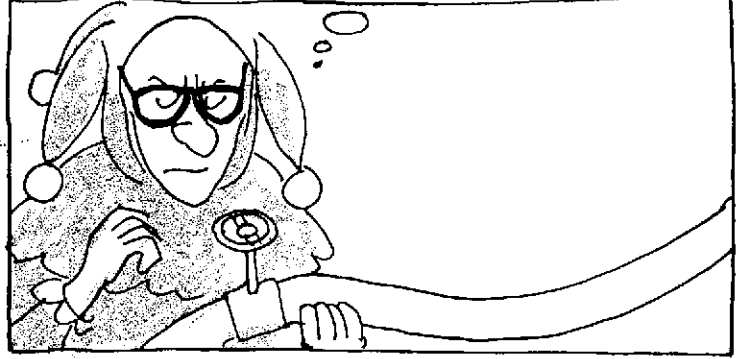
아마 저 탱크 비워 보면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올거야,

대출의뢰와 신용의 추락이
소비를 조장하고 가격을
폭발시켜 버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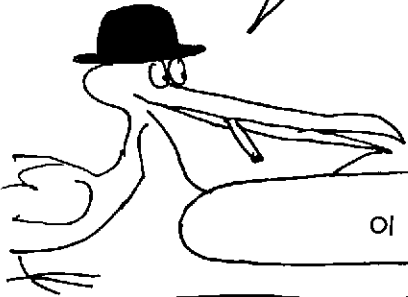


신용의 남용을 막아야 해.

머니메이커 놈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있어.
하긴, 나조차도 저 녀석에게 돈을
꿔주고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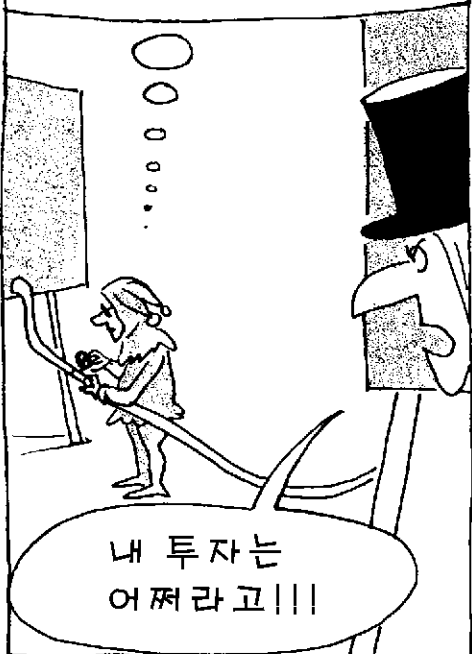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거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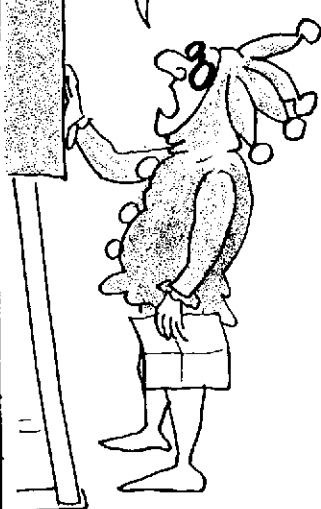
이 대출 속에도 거품이 많이 있어.

저 녀석의 신용을
낮춰야 겠어.
그래야 대출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될테지....그럼 다....



내 투자는
어찌라고!!!

좋아, 이제 신용 사업을 약간은 통제했어,
그런데, 그래도 국고는 빠른 속도로 줄어
들고 있잖아.



어떻게 하지?
어느것을 올리지?
직접세?... 간접세?...
.. 아니면, 법인 소득세를?



그냥 전부 다?

유량 증가가 필요하다!

시니스터씨,
파이프 내 압력이 떨어져
바로미터가 내려가고 있어요.

얘들아, 탱크가 거의 다 비었어!

대체 누가 이딴걸 쑤셔 박아
놓은 거야?!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도 우리를 볼 수
있잖니.

국고로 작동되고 있는
커다란 램프지.

뭐야!? 지금 당장 끄지 않으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어!

그럼, 유량이나 증가시켜줘,
안그럼 원동기 가동을
중단하겠어.

이제 방법은 한가지 뿐.

그...그래, 알았어. 지금즉시..

시니스터 지금 뭐하는 거야?

돈 회로에다 저 커다란 탱크
들을 끼우고 있어.

국고탱크 다시
작동시키면서,

이 탱크들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어쨌든, 안심이 된다. 근데, 저 속엔
뭐가 들었을까?

대체
어쩔 작정
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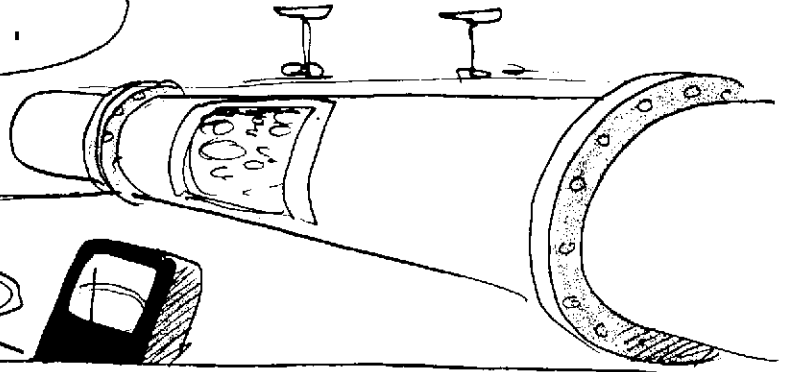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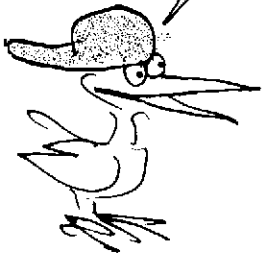
아 이제야 겨우 유량이
증가되고 있네.
오래도 걸렸네!

워이잉-

와, 이 농도 좀 봐!
소비펌프 끝장나게
잘 돌아가네,

어이, 가격!
조심해!!!

어쨌든, 기계 잘 돌아가고
소비펌프 잘 작동하면 그만인 거지,



헛 참, 이거나 보구 얘기해!
여기 저기 농도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

이상하다,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두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것 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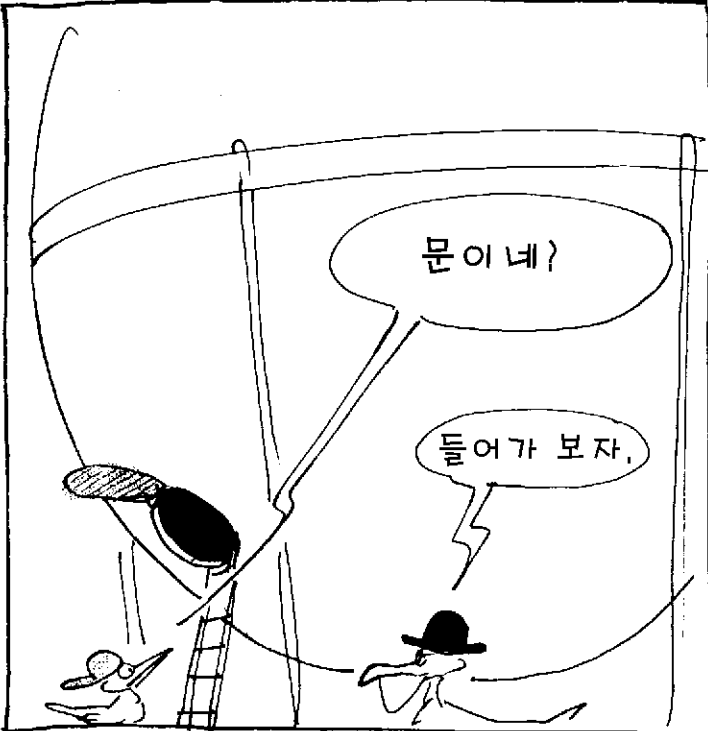
시니스터 재,
대체 이 경제 유체에다 뭘
집어 넣은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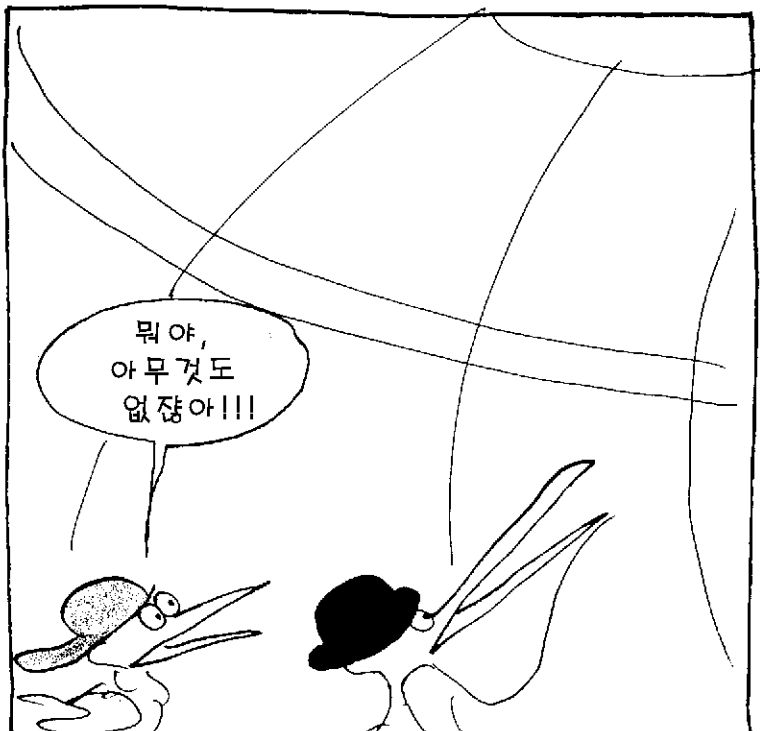
탱크 보러 가 보자,

문이네?

들어가 보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 큰 탱크들이
벌써 다 비었단 말야?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거야!

그럼, 일종의 진공경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뭔가가 안 돌아 갈때는,
시니스터(미니스터 즉, 장관)들이
다 그렇듯이 회로에 엄청나게
바람을 집어 넣어 기포를 만들지,
그러면 일단 돈을 밀어 낼 수 있게
돼, 말하자면 일종의 자극같은
거야,

그런데 이 모든게 균질화 되어
결과적으론 돈의 밀도가 낮아
지는 거야,

가격도 오르고,

저축이 줄어들고 있다,

어 이런, 내 저축도
줄고 있어,

자본도 마찬가지로야...

이봐, 머니 메이커!

자본이 새고 있어,
이 망할 자식!!!



때 맞춰 잘 왔군!...



머니메이커,
너의 자본이 필요하다.



애들처럼 굴지마!

어딴는 거야?

뭐야,
공공 열었네!!!



글을 남기고 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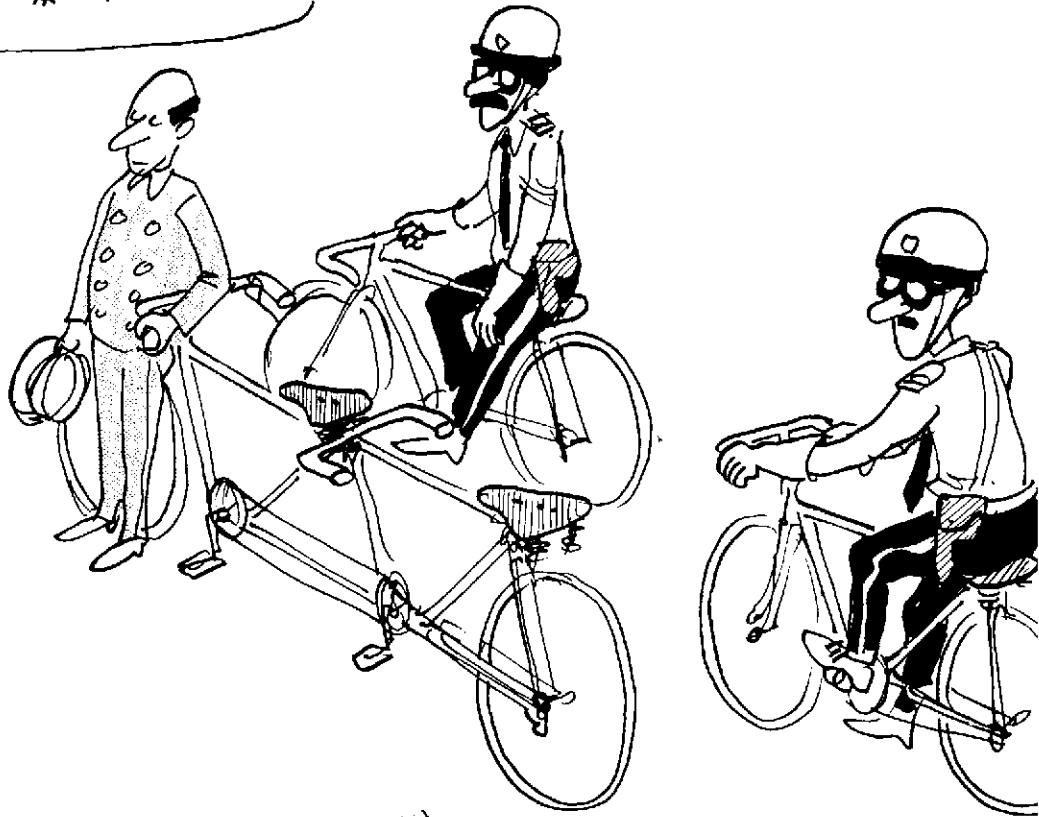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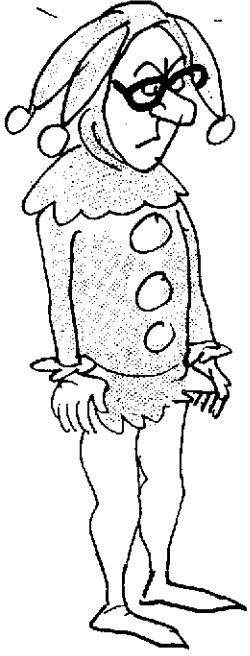


봉급을 차단하고, 법인세와 사회보장세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보조금을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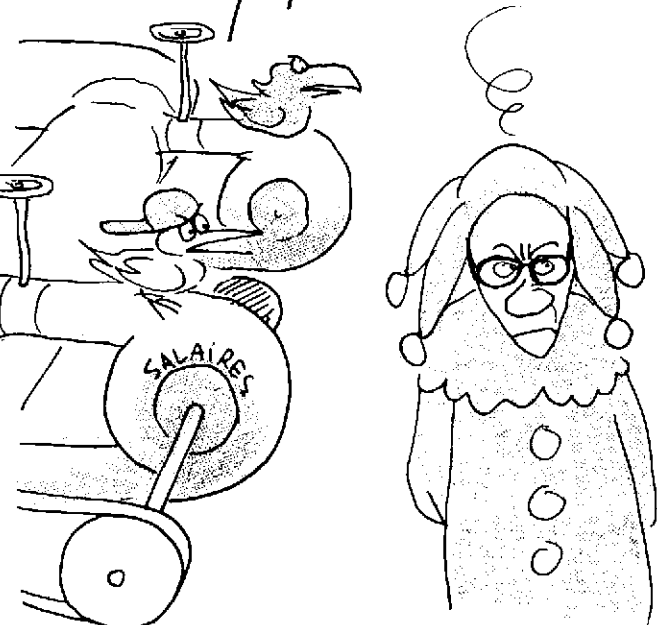
머니메이커 울림

그러면.... 구매력이 낮아 질텐데,
불평도 많아지고 소비펌프도 엉망이 되고 말테구.

일단 이 비싼
기름부터 절약해야 겠어!



이 돈들 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져 버렸어, 유량을 높여달라!!



내가 뭐라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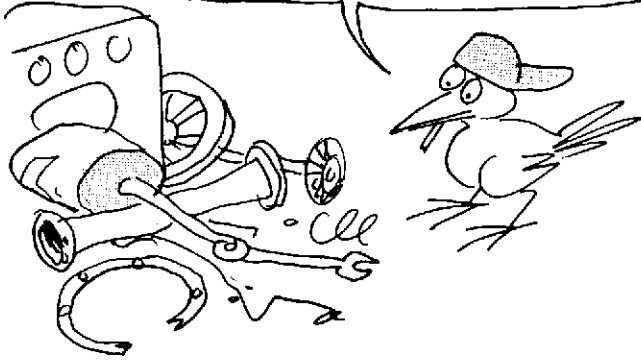
미쳤어!

완전
파산이구만!...

내가 시니스터
였을 때도 이거
보단 나왔는데..

에펠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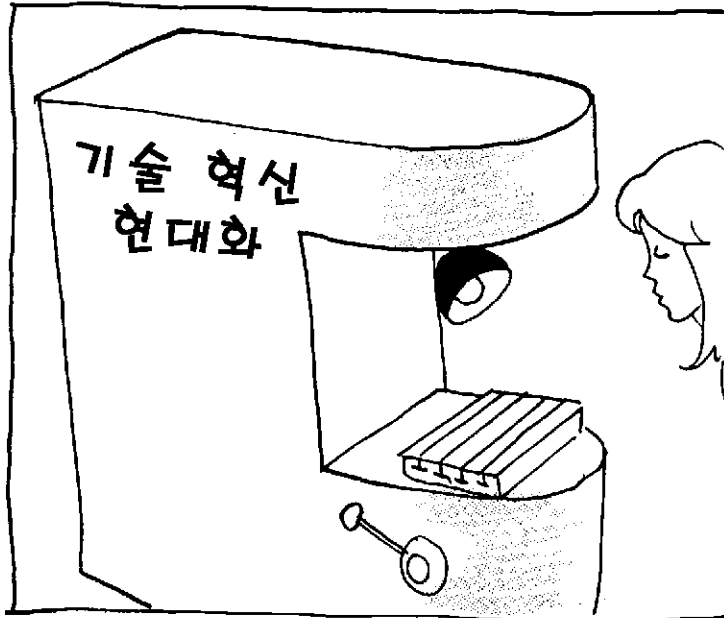
어, 아직도 생산 개체 하나가 더 남았네.



다른걸 만드는게 낫겠어....
더 다양한 걸로...
...더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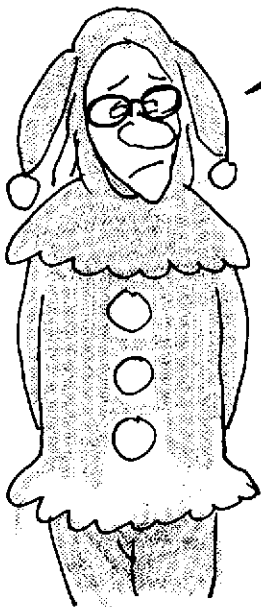
시니스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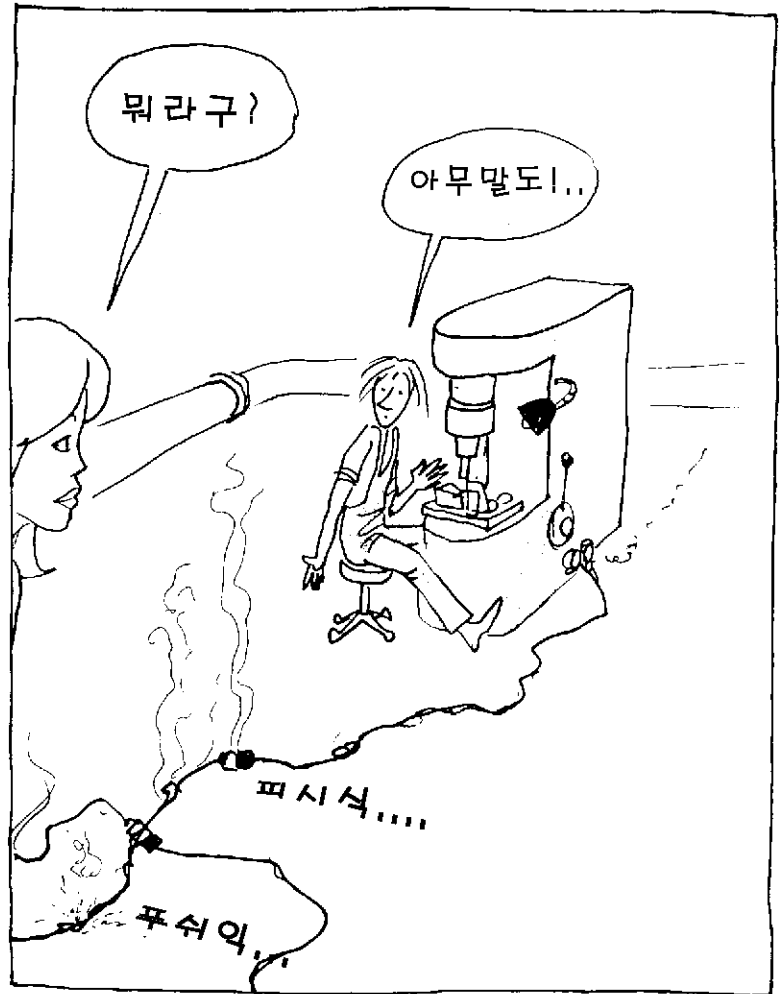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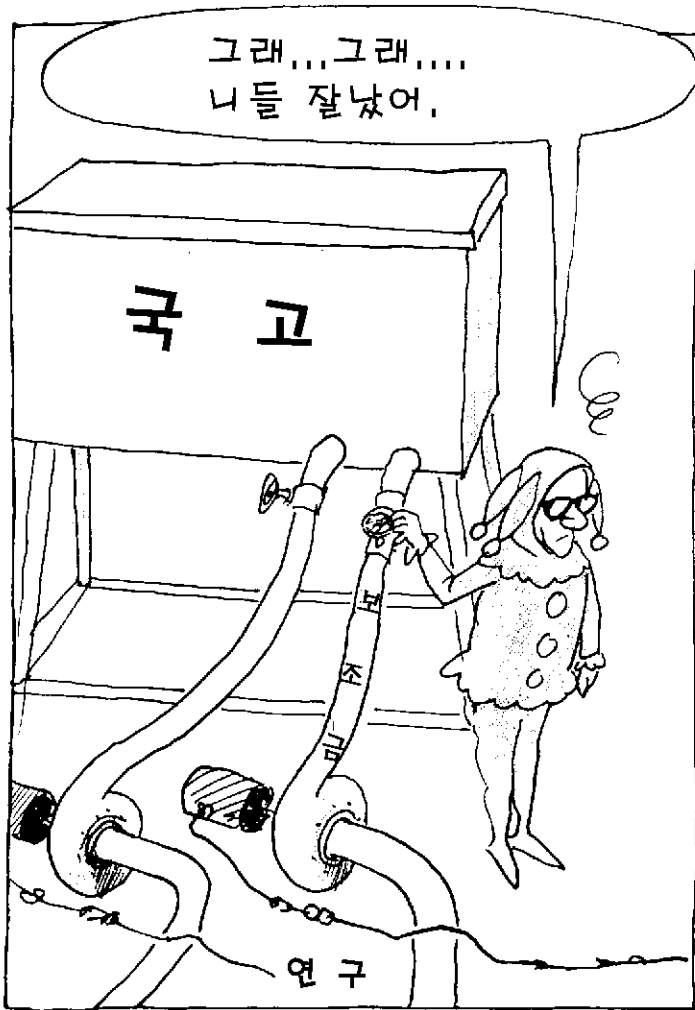
다른 시니스터를 할까?
아니면 정무차관이나...

응?

시니스터님,
유일한 해결책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술 혁신을 해서 보다 현대적인 생산설비를 갖추어야 해요.



상상력을 발휘하라구, 상상력을.



우리 나라는 바로 이 누선이 문제야.



끝